

나눔 라디오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 교육 매뉴얼



나눔 라디오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 교육 매뉴얼

나눔라디오- 라디오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교육 매뉴얼

발행일 : 2007년 2월 5일

발행인 : 이대엽, 이종덕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757

전화 (031)783-8000

팩스 (031)709-6021

홈페이지 www.sncl.or.kr

기획 :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라

사진/글 :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316 이안오피스빌딩 3층

전화 (02)796-8619

팩스 (02)796-8617

이메일 sambakja77@naver.com

디자인 : 양빈

인쇄 : 비전21

전화 (02)2275-7504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나눔라디오'를 발간하며

문화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때로는 창조하고, 때로는 매개하고, 향유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조, 향유, 매개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공간, 단체 등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주체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화적 서비스를 순환시킬 수 있는 '문화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한정된 지역에서 물건과 물건, 물건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새로운 방식인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통화'를 통해 성남지역의 문화예술의 선순환구조를 설계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선진지 연수, 문화통화 가능모델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성남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8해피존 '모람아지트'에서 진행된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나눔라디오' 역시 성남시 문화통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나눔라디오'의 매뉴얼은 성남문화통화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실무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통화교육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문화를 통한 나눔과 그 실천의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문화의 도시, 성남'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유롭게 숨쉬며, 어른과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 할 수 있는 성남을 상상해봅니다. 이제 '문화의 도시, 성남'을 어른들만이 아닌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지역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그 몫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남의 청소년들이 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활발하게 교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뉴얼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부설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라'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 바쁘신 속에서도 나눔 라디오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조언을 아끼주지 않으신 1318 해피존 '모람아지트' 담당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2.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이대엽



이 책의 제작 배경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소리 또한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발전의 과정속에서 많은 소리를 만들어 냈지만 또 많은 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창조물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얻은 대신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요즘 세상엔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잃어버린 소리 따위에는 신경조차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리면 들려오는 소중한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소리에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나요? 힘차게 두근거리는 심장소리는 생명의 소중한 신호입니다. '문화'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보다 더 모호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게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문화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문화가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의 일부분이기는 할지언정 전체를 말해주지는 못 할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 백범 김구 '내가 원하는 나라' 중에서 〉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복 할 수 있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력(富力)이나 무력(武力)이 아닌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문화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문화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회적인 힘이자 무언가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가 아닐까 합니다. 문화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 보여준 질서의식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 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누려 하는 마음이 문화적 힘이며, 자신의 행복과 더불어 남의 행복도 살필 줄 아는 것이 문화의 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험한 세상에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과 선의의 경쟁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겠지만 다른 이들과 협동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 미래의 문화적 힘이 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문화강대국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력과 무력의 강대함만을 쫓았던 나라는 자신들뿐 아니라 남들마저 불행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문화의 힘

나눔 라디오와 문화통화교육은 단지 라디오 방송을 만들면서 문화통화를 경험해 보는 수업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화려해 보이지 않거나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가치를 나눌 수 있고, '나'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면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의 몫이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화두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지닌 존재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니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매뉴얼은 수업 과정에 대한 보고서이며 이 글을 읽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안서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매뉴얼이 성남에서 그리는 문화통화의 커다란 밑그림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과 매뉴얼 제작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성남문화재단, 수업 진행과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1318해피존 '모람아지트' 담당선생님, 책의 멋진 디자인을 위해 힘써주신 디자이너 양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을 나누어준 어리지만 진실하고 멋진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에이스벤추라가 시행한 문화통화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나눔라디오'의 수업을 바탕으로 제작된 매뉴얼입니다. 이 수업은 성남 1318해피존 '모람아지트'에서 진행되었으며 그곳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문화통화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는 실무자 및 교사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업은 총 10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강의당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에이스벤추라 올림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나눔라디오'를 발간하며
이 책의 제작 배경

5
6

1부. 지역통화와 문화통화

1. 지역통화 이모저모

10
10
15
24
24

- 1) 지역통화 이해하기
- 2) 지역통화가 걸어온 발자취
- 3) 문화통화란 또 뭘까요?
- 4) 나눔라디오에서 문화통화란?

2. 문화통화와 문화예술교육

28
28
29

- 1)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며
- 2) 문화예술교육이 문화통화 교육을 만났을 때

2부. 라디오 문화통화를 만나다

1. 왜 라디오 방송 만들기인가?

30
30
32
34
35
36

- 1)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하여 만나는 일상
- 2) 구성주의교육과 나눔라디오
- 3) 나눔라디오의 교육적 효과
- 4) 수업의 흐름과 교육을 통한 기대효과
- 5) 매뉴얼의 활용 방법

3부. 나눔라디오 강의 매뉴얼

프롤로그, 할 말 많은 청소년들 라디오를 만나다	38
첫 번째, 나만의 라디오 광고 만들기	48
두 번째, 나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52
세 번째, 스스로 장비 사용법 익히기	57
네 번째, 소리시장 준비	63
다섯 번째, 소리시장	68
여섯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	73
일곱 번째,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1 - 기획과 대본작성	78
여덟 번째,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2 - 녹음	84
아홉 번째,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3 - 편집	88
열 번째, 라디오 방송국 개국하기 - 공개 방송	94
에필로그	100

4부. 아, 아, 아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1) 함께한 이들 인터뷰	102
2) 나눔라디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106

에이스벤추라	110
모람아지트	112
성남문화재단	114

Contents

1부.

지역통화와 문화통화

1 지역통화 이모저모

1) 지역통화 이해하기

지역통화 운동은 공동체의 규모나 성격, 도입 취지 등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중 국내에서 운영 중인 통화는 크게 지역통화, 교육통화, 문화통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통화라는 큰 맥락이 존재하지만, 통화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과 통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지역통화에 대한 정의, 개괄과 함께, 나눔라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통화'가 어떤 맥락에서 도출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지역통화인가?

화폐(돈)는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화폐는 단순한 가치와의 교환을 넘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누리는 모든 것(문화)과 관련해있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더 작게는 나의 작은 집 안에서도 필요한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법정통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은 점차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치, 즉 '돈과 상관없는'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의지하여 우리는 의식 없이 거래를 합니다. 물건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은 모두 가격 경쟁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폐라는 공통의 기준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가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것에 국한되게 되었으며, 돈의 많고 적음이 한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작용을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었고 가치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허나, 여기에는 의미를 지닌 '교환'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시장에서 생산된 잘 만들어진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상품이나 서비스는 점차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세분화되고 간결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혹시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 보기만 해도 인간 행동 달라진다.

사람들은 그저 돈을 보기만 해도 돈이 안 보일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연구가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캐슬린 보스 교수 등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낱말 맞추기 등 과제를 주고 돈 구경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행동을 비교한 결과 돈을 보거나 돈 생각을 한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행동이 달라졌으며 이들은 자립심이 높아진 대신 덜 사교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돈은 없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을 불러와 왓자지껄 웃으며 짐을 옮기지만 이런 학생들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하면 이사 대형업체를 부르기 때문에 일은 깔끔하게 끝나는 대신 대인관계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인류 진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누구나 집짓기, 먹거리 구하기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교환가치가 있는 화폐가 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52명의 미네소타 주립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여러 개의 호트러진 단어들을 사용해 두둑한 봉급'과 바깥 날씨가 춥다'는 두 개의 문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어 음반들을 이용해 네모꼴을 만들도록 시킨 뒤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돈과 무관한 문장을 만든 학생들 중 일부를 모노폴리 게임의 게임머니를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했다. 그 결과 돈과 관련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과제를 시작한 지 평균 5.2분 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돈과 관련 없는 문장을 만들었지만 돈을 본 그룹은 평균 5.1분 만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돈과 관련 없는 문장을 만들고 돈 구경도 못한 학생들은 3분이 지나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 주립대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에서는 각자에게 25센트짜리 동전으로 2달러씩을 주면서 먼저 실험에서 남은 돈이라고 말해준 뒤 역시 호트러진 단어들로 한 그룹은 돈과 관련된 문장을, 다른 그룹은 돈과 무관한 문장을 만들도록 했다. 그 결과 돈과 무관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다음 실험을 위해 평균 1.34달러를 남긴 반면 돈과 관련된 문장을 만든 그룹은 평균 77센트만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학생 61명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설문지에 답하도록 한 뒤 한 그룹에는 돈이 보이는 포스터, 다른 그룹에게는 꽃과 바다 풍경 등 다른 그림 포스터가 보이도록 했다. 그 뒤 이들에게 4명이 함께 하는 저녁식사와 개인별로 수강하는 요리강좌 가운데 고르도록 하자 돈 그림을 본 학생들은 개별적 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엑시터 대학의 스티븐 리 교수는 사이언스지에 함께 실린 논평에서 "이 실험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돈과 관련된 힌트가 사람들의 목표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시사한다. 돈의 개념에 접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더 자립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6년 11월 2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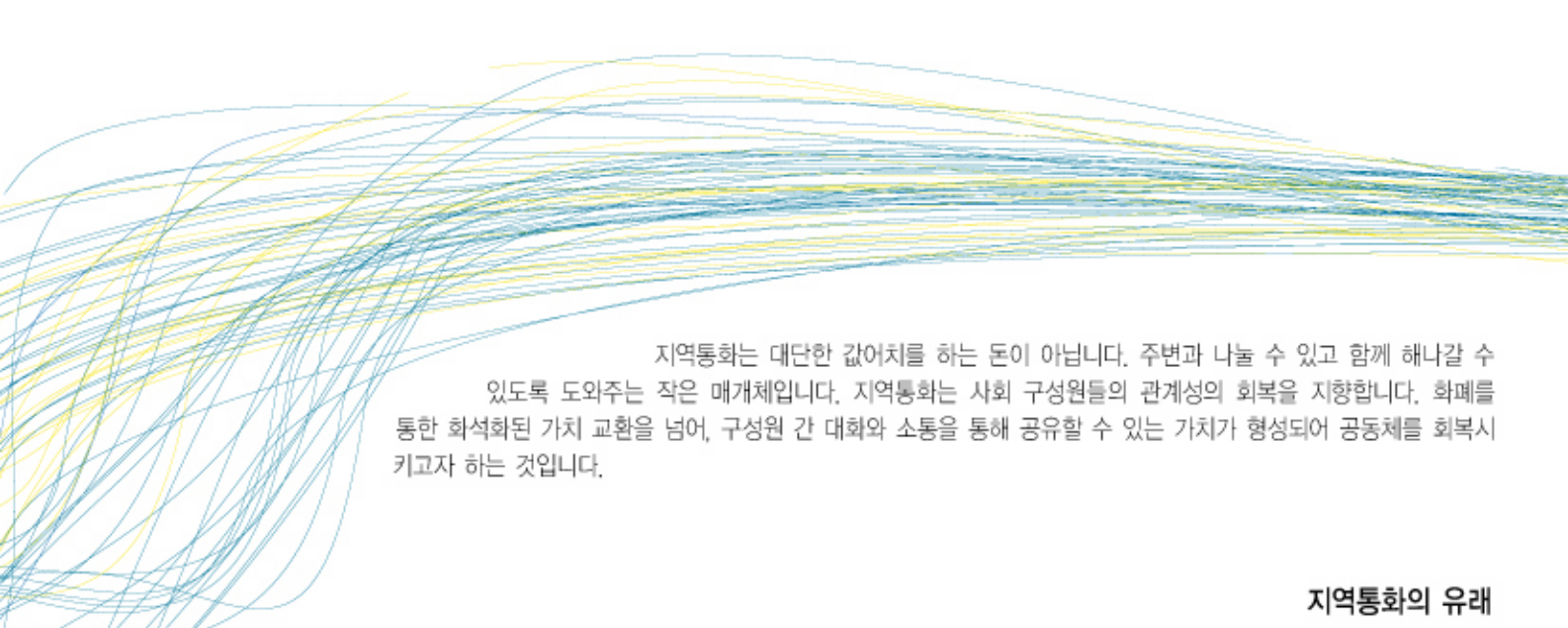
이렇듯 오늘날의 화폐제도는 사람들 간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과 함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격에 의해 가치가 매겨져있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과 개인적인 효율성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 능력에 따라 돈을 모으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셈입니다. 부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고 점차 개인 간 능력이나 환경에 따른 경제적 빈부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화폐제도에 따른 이러한 관계적 양태는 사회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 사회가 지닌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법정화폐'로 일괄 적용되면서 각 나라, 지역의 고유한 가치 체계나 공동체 가치마저 본래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치'라는 합의를 잃으면 그것은 아무리 고유하고 오랜 것일지라도 하찮은 모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농사일을 도우며 함께 일손을 나눴던 두레나 품앗이의 풍습도 사라지고 있고, 지역이나 마을의 작은 시장, 상점들 역시 대규모 기업 상점들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는 점차 스킨십과 이해의 통로보다는 계약과 이익을 택합니다. 화폐를 통한 관계에서는 그다지 많은 대화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죠. 단지 돈을 주고받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점차 그 지역 공동체들

이 함께 공유하던 가치들은 점차 사라지고 사회가 정한 화폐 가치에 따라 표준화되고 일반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래의 대상이 되어 마을이나 공동체에 대한 고려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역통화는 화폐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폐를 통한 획일적인 기준에 대항해 서로 간의 가치를 정하고 나눌 수 있는 교환의 취지와 결을 살리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게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된 물건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억만금의 돈보다도 가끔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청소를 도와주는 작은 도움이 더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연주는 할 수 없어도 코드만 볼 줄 아는 나의 하찮은 기타실력이 학원에 갈 형편이 못되는 우리 동네 꼬마 아이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작은 가치의 나눔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가치를 정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형성된 관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러한 거래가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치의 발견은 진정한 실질적 이익들을 자신의 주변에서 나누고 발견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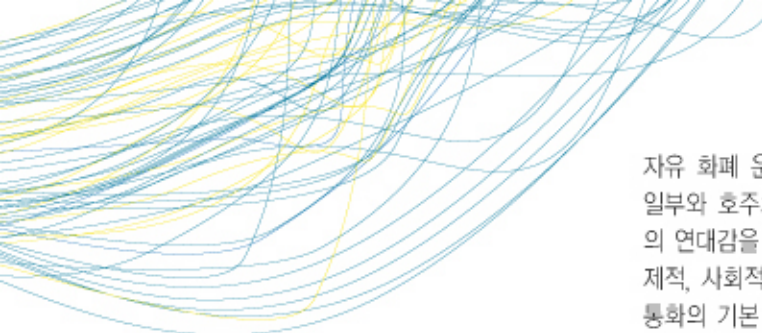
지역통화는 대단한 값어치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주변과 나눌 수 있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매개체입니다. 지역통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성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화폐를 통한 화석화된 가치 교환을 넘어, 구성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되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통화의 유래

지역통화는 1820년 영국의 사회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웬이 고안하고 발행한 '노동증명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런던의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대가를 노동증명서로 받았습니 다. 그리고 거래를 허락한 개인과 상점에서 돈 대신 이 증명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화폐의 유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백년 뒤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 1862-1930)이 처음 실시한 '스탬프 화폐(인지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통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젤은 기존의 화폐 제도에 대한 맹점을 비판하며 스탬프 화폐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서〈자유토지와 자유 화폐에 의한 자연적 경제 질서〉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담당하는 자연도태의 법칙을 존중하고, 만민에게 스스로 완전한 발전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지배에서 해방된 인격의 이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화폐제도에서는 이자가 붙는 플러스 금리로 인해 부가 축적되고 집중되는데, 게젤은 결국 여기에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유통기간을 가지고 플러스 금리가 축적되지 않는 자유 화폐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은 게젤 외에도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기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이자가 붙는 이식 체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로섬(zero-sum :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 방식이 아닌 추가적인 이익이 축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유통이 활성화 되기보다는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다른 한 쪽의 결핍 현상을 부르게 됩니다.



자유 화폐 운동은 1930년대 공황기에 많은 지역에서 실천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일부와 호주처럼 실업률이 높고 빈곤의 정도가 극심한 지역에서, 거래 당사자들끼리의 연대감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지역 통화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황에 따라 생산이 정체되고 실업자가 넘쳐나던 지역에 소비와 유통이 살아나고 실업이 해소되는 경제회복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국가 통화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의 진행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 화폐의 기본정신에 바탕한 지역통화 개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1930년대를 지나면서 400개 이상의 지역과 조직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지역 통화의 개념과 정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3천여 개의 지역과 조직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과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활발하게 지역통화를 운영하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996년 지역통화 개념이 소개된 뒤 지금은 30여 개가 넘는 지역에서 지역통화를 통한 공동체 구축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화의 의의

지역통화 운동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화폐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와 교환이 현금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현금을 쌓아두면 거래와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통화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통화를 축적해 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필요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자들 간 상호 협조를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통화의 축적이나 소비에 있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어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누구든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현실적인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여건과 참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다른 이들과 충분히 교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교환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통화의 운영방식에서는 통화를 아무리 저축해도 축적에 따른 이윤이 생기지 않으므로 통화를 축적하기보다는 발생하는 통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곳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 참가자들 간에 교역이 활성화되고 그것은 곧 공동체 내에서의 대화와 소통이 활성화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결집력이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교환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참가자들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지역통화의 다양한 얼굴

지역통화의 일반적인 종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통화는 통화의 형태나 운영방식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지역통화의 기본정신이나 개념은 유지하되 해당 지역이나 조직의 성격에 따라 형태 및 운영방식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 성사 방식에 따라(구좌 등록방식, 대안 화폐발행 방식, 어음 발행 방식, 카드 사용방식), 가치 기준 방식에 따라(시간, 법정화폐와의 연동)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통화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레츠 (LETS :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 지역교환교역제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1983년 캐나다의 마이클 린턴에 의해 고안되어 시작됐습니다. 린턴은 그 자신이 실업자였을 때 자기 동네에 있는 많은 이들이 서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쓸모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거래할 돈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바로 '녹색달러'로 명명된 레츠(LETS)였습니다. 처음 6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는데 4년 뒤에는 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레츠는 영국, 호주, 미국 등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손상을 입은 많은 지역공동체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특정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별도의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컴퓨터 디스크에 기록된 거래기록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계좌잔고를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거래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 반대로 제공을 했다면 플러스(+)로 통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래의 성사는 개인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쌍방 간에 가치를 상정하고 결정합니다. 통화를 운영하는 공동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통은 전체 운영에 대한 관리자를 두고 참가자들이 거래를 실행합니다. 그 거래 내역을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면 관리자는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전체 운영의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이타카 아워스(Ithaca hours) : 화폐형 통화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들이는 화폐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물며 생혈처럼 순환했다. 소규모 상점에서 돈이 지출될 때마다 이는 모든 거래에 새로운 부와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며 계속 순환했다. 그런데 요즘엔 대규모 공공사업체나 대형 소매상 등 외부로 돈이 곧장 빠져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마을은 위축돼버린다. 또한 대륙을 넘나들며 채소를 운반하는 트럭이 내뿜는 화석연료로 지구는 점점 더 온난화 돼간다.

‘아워스(hours)’는 경계선에 둘러쳐진 화폐라 지역사회 안에서만 머문다. 마을로 가서 몇몇 이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구 곳곳을 떠돌지 않는다. 이는 상거래를 지역적으로 강화한다.

—폴 글러버, 이타카 아워스(Ithaca hours)의 창시자

미국의 작은 소도시 이타카(Ithaca)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타카 아워스(Ithaca hours)와 같은 화폐형 통화(local money)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발행, 유통이 되는 화폐입니다. 아워스(hours)의 창시자인 폴 글러버는 이타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대규모 사업체나 대형 매장을 통해 화폐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감소시키고, 경기침체를 야기했습니다. 폴 글러버는 지역 내에서만 활용되고 인정되는 가상 화폐 운영을 시도합니다. 이타카 아워스는 1시간 당 10달러의 가치로 정해졌습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신문 <이타카 머니(Ithaca money)>를 통해 아워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화폐의 운영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발행된 이타카 아워스에는 시장과 상공회의소의 지지하에, 현재 지역 내 300여 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이타카 아워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폐형 통화 운영의 장점은, 지역사업체에 홍보 측면에서 우위를 보장하여 지역 경제인들에게 상업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유지하여 경기침체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 방식의 경우 위에 언급된 레츠보다는 비교적 넓은 도시 행정구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카 아워스처럼 처음에는 지역 화폐로만 거래가 되다가 점차 은행과 연동하여 실제 화폐와도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③ 타임달러(time dollar) : 시간 기준의 지역통화

“시장경제는 보살피고 사랑하고 시민, 이웃, 인간이 되는 일 등 진정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사회에 필요한 이런 일들은 시장 가치만 높이 형성된다면 최소해지지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데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 높은 보상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에드거 칸, 타임달러를 떠받치고 있는 사상에 대해

시간 개념을 적용한 화폐인 타임달러는 1987년 미국의 에드거 칸이 고안했습니다. 그는 시장가치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화폐 제도의 폐해를 우려하였는데, 이러한 화폐제도로 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지역 내 일련의 조직과 공공기관, 업체와 일반 시민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생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통화가 바로 타임달러인 것입니다.

타임달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가치로 '타임' 즉 시간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 타임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기초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활용되며 타임뱅크라는 거점을 두고 관리자(코디네이터)를 통해 전체적인 등록과 관리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타임달러의 취지는 사회에서 문제아나 쓸모없는 인간으로 치부되던 이들에게 책임감을 돌려주고 이것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죄수들은 자기 아이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일로 돈을 벌고, 우울증에 빠진 이들은 노인을 돌보며 타임을 벌게 됩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화폐로는 매겨질 수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 가령,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거나 옆에 함께 있어 주는 일 등에 소중함을 일깨우고, 실천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화폐시장이 아닌 곳에서 서로 간에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를 통해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 통화인 것입니다. 실제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는 몇몇 병원에서 천식환자를 돌봐주는 다른 천식환자들에게 타임머니를 지급해 2년 새 천식치료에 드는 비용을 7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살펴주고 천식발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등이었는데 성취감 때문에 천식환자들의 증세가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로 실려 오는 천식환자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화폐형 통화와 같이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지만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유통을 상정하는 커뮤니티 통화(Community currency), 법정통화와 병행해서 사용하며 법정통화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병행 통화(Parallel currency), 사회자본의 형성과 협동사회 건설에 법정통화를 보완하는 통화로 이용되는 보충 통화(Complementary currency) 등 지역과 조직의 성격, 유통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지역통화 현황과 사례

국내에서는 1996년<녹색평론>에서 레츠를 소개하면서부터 지역통화에 대해 알려지게 됩니다. 1998년 3월 신과학운동 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이 '미래화폐(im)'란 이름으로 지역화폐 운영을 처음 시작한 이래, 미래여성클럽, 불교환경교육원, 인하대학교 내 인천정보센터, 중앙대 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기술도구은행, 관악 지역화폐 등에서 지역통화를 도입하는 등 점차 지역통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한편, 대전 지역에서는 '한발레츠'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4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단체는 특히 의료 생활 협동조합이 참가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출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작아 장터, 교육관련 출판사인 민들레의 민들레 교육통화 등이 지역통화운동을 전개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와 대구 동구청의 '봉사품앗이', 안양시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역통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시도되었던 지역통화운동은 약 30개가 넘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스템 운영의 부침이 심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곳은 '미내사' 이외에 대전 지역의 '한발레츠', 광명 지역의 '광명그루', 과천 지역의 '과천품앗이' 등입니다. 올해로 지역통화가 국내에 도입된 지 약 10년이 됩니다. 초기 지역통화의 이념과 운영 방식에 공감하고 많은 지역과 조직에서 활성화를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 참여자들은 지역통화 운동의 목적, 효과에 공감해서 참여하였으나, 이후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끌어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통화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도 해외 사례들처럼 공동체의 규모나 성격, 도입 취지 등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양합니다. 국내 지역통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방식이나 교환되는 상품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통화는 크게 지역통화, 교육통화, 문화통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통화라는 큰 맥락 안에 포함 되지만, 통화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과 통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역통화는 해외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소규모 지역이나 특정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서로 통장 등 구좌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 내역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봉사) 등 거래 가능한 품목들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내사, 한발레츠, 과천 품앗이 등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역통화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통화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지역통화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참고서나 테이프, 컴퓨터처럼 학습에 필요한 교재나 도구 등을 주거래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기술이나 지식(취미, 특기, 기술 등)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광명그루, 민들레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지역이나 일반 공동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통화는 현재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상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대두되는 개념입니다. 문화예술 관람과 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거래를 주거래 품목으로 하여 문화예술 소비자나 창조자들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다층적인 문화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예술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올해부터(2007년) 단계적으로 문화통화를 도입하여 지역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 스스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선 '문화통화'로 공연장 대여

성남市, 지역 3900여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공연·전시·강연하면 '문화통화' 두둑하게 적립
음악·미술·무용·건강·어학·독서에 두루 개방

성남에 사는 '나문화(가상의 인물)' 씨는 문화생활이 필요할 때면 인터넷에 접속해 성남지역 동아리방을 탐방, 스케줄을 잡는다. 성남의 동호회 커뮤니티 '사랑방 클럽'에는 이 지역에서 활약하는 각종 동아리·동호회 활동사항, 일정, 자료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나씨는 송년모임이나 작품발표 장소도 이곳을 통해 예약한다. ○○복지관, △△교회, □□문화센터 등 사용 가능한 곳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문화통화(通貨)'로 값을 지불한다. 문화통화는 공연이나 전시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미 적립해 놓았던 것이다. 성남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일이 점진적으로 가능해진다. 성남문화재단이 2008년을 목표로 이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성남은 동아리·동호회 천국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8~10월 3개월 동안 성남시 동아리, 동호회를 조사 분석했다. 동호회 실태를 파악해 이들 생활문화클럽, 각종시설, 문화예술 전문가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다. 박승현 문화기획부장은 "성남이 문화의 도시가 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이 최근 추계예술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에서 음악, 미술, 사진, 어학, 무용, 건강, 봉사, 취미, 독서 등 관련 동호회는 396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회원 3명 이상,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물이 3개월 이내에 올라와 있는 동아리'. 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103개 동호회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은 "관내 문화클럽을 조사 분석한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가 전국 최초 일 것"

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생적 지역 동아리에 대한 분석은 문화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호회 중 65%가 취미를 위한 모임, 나머지가 전문 모임이었다. 활동지역은 단연 분당(4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남 전체(23%), 수정구(13%), 성남외부(12%), 중원구(8%)순이었다. 박 부장은 "구에 상관없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층이 20%가 넘어, 문화클럽이 더 활성화되면 본시가지와 분당 간 문화격차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직장인(33%)과 주부(18%)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23.8%, 20대 21.6%, 혼합이 27.3%로, 다양한 연령대, 직업의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동아리클럽파티 등 네트워크 구축

성남문화재단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랑방 문화클럽'을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26일 산도깨비 풍물, 탑아츠 누트크로키, 들꽃 독서회, 분당동화원은 어른모임, 분당색소폰클럽, 청년대학 기행반 등 29개 동호회를 모아 클럽파티를 열고, 온라인상에 커뮤니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원 수가 많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동호회를 중심으로 연습실, 발표마당 등 공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현 부장은 "대부분의 동호회들이 현재 활동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조만간 공간 실태조사를 거쳐 동아리 네트워크와 지역의 여유 공간을 연결하는 인터넷사이트도 만들 것"이라며 "여기에는 일본의 지역통화처럼 공간을 빌리는 대신 공연 봉사 등으로 실적을 쌓아 돈처럼 사용하는

'문화통화' 개념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문화통화'란 'OK캐쉬백'처럼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하는 일종의 화폐다. '포인트'는 동아리·동호회가 무료로 지역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공연이나 축제 등을 열어 적립할 수 있다. 쌓인 포인트는 다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직접 비용을 줄이는 대신 지역 문화교류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재천 국장은 "동아리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성남 동아리·동호회들이 서로 문화클럽에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치게끔 관심을 끌어내는 게 목표"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 예술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6년 12월 20일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화방식을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미래사 fm(future money)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통화 시스템을 도입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의 모임'(이하 미래사)에서는 미래사fm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fm 지역통화 웹 시스템이란?

fm이라는 가상의 화폐를 통해 서로의 서비스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전래의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물물교환시스템의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부의 축적이 없는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의 진정한 돈의 의미를 실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물품을 이를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노동과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간 품앗이' 시스템입니다.

fm 지역통화의 특징

비영리로 운영됩니다. 회원 공동체 화폐(fm)를 사용한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며, 회원들의 신뢰와 유대가 담긴 따뜻한 돈입니다.

거래절차

[거래등록] 제공할 수 있는 또는 제공받고 싶은 물품 및 노동을 fm거래소에 거래등록을 합니다.

[거래신청] 다른 회원의 거래신청을 기다립니다.

[거래제공] 거래신청을 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완료] fm거래소에서 거래 상태를 [거래완료]로 바꿉니다.

[fm 지급] 거래 상대방에게 fm지급을 받습니다.

[거래종료] 나의거래내역에서 지급받은 결과를 확인합니다.

거래 가능한 품목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과 노동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로 아기 돌보기, 컴퓨터 수리, 운전교습, 집수리 등의 노동과 아기보행기, 자전거, 오디오 등등의 물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출처 - 미래사 클럽 홈페이지(<http://www.herenow.co.kr/>)

미내사fm의 경우 현재는 전
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교환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거래
시도는 웹상에 있는 fm 거래소를 통해
제안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신청자들이 답변을 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 후, 이 거래 내역을 웹 게시판에 공지하고 쌍방 간에 통화를 주고받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fm 거래소' (fm Marketplac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거래등록' (Transaction Registration), '거래신청' (Transaction Request), 'fm지급' (fm Payment), '지급완료' (Payment Complete), and '거래종료' (Transaction Complete). Below this is a table of transactions.

No	지역	거래명	fm(+원금)	등록자(ID)	등록일	상태	거래상태
218	전국	대형용 가방을 드립니다. [1]	10,000 (+0)	홍꽃	05.12.31	완료	지급완료
217	전국	대형용 유리 그릇 세트를 드립니다. [1]	10,000 (+0)	홍꽃	05.12.31	완료	지급완료
216	전국	물품 드립니다. [1]	35,000 (+0)	홍꽃	05.12.31	완료	지급완료
215	전국	조용해 주세요!	70,000 (+0)	홍꽃	05.12.31	완료	지급완료
214	전국	간가 밥술이 필요해요!	0 (+0)	홍꽃	05.12.27	완료	거래신청
213	전국	무궁해 약 오백 [1]	2,000 (+0)	lpsin	05.11.08	완료	거래신청
212	전국	무농약 대주교구마 [1]	20,000 (+0)	모래요정	05.08.29	완료	거래신청

위와 같이 fm거래소에 주고받을 품목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올립니다. 각자가 지금 가능하거나 필요한 가격을 미리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 상태에 따라서 거래의 진행과정도 표시됩니다.

게시된 품목에 대한 거래여부는 온라인상의 댓글을 통해 주고받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답변이 완료되면 배송이나 직접 만남을 통해 품목을 교환하고 절차에 따라 온라인상에 [거래등록]->[거래신청]->[fm지급]->[지급완료]->[거래종료]로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회원 관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관리자에 의해 인증을 받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 없이도 전국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확장된 사례입니다.

공동체 화폐 '두루'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품앗이와 두루

농사일이나 잔치가 있을 때 서로 품을 내어 도움을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네사람끼리 내남없이 나누며 어울리고 살았죠. 한발레츠는 이 품앗이 정신을 오늘 우리 생활에 되살리고자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드는 모든 것, 시간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누군가는 그것을 필요로 할 테니까요.

한발레츠 품앗이에서는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는 보잘 것 없는 기술이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거리들이 눈에 뜁니다. 또한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도 생필품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쓰지 않고 놀리는 기구나 물품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쓸모를 생각하다보면 버릴 것이 줄어들고, 돌려가며 빌려 쓰다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어디 마땅히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일들, 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화폐 '두루'란 무엇인가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공동체 화폐의 명칭입니다. 액수는 거래 당사자들이 정하게 되며 현금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1,000두루=1,000원) 현금과 두루를 같이 사용할 경우 전체 가격의 30% 이상을 두루로 거래해야 합니다.

출처 - 한발레츠 홈페이지(<http://www.tjlets.or.kr/>)

한발레츠는 1999년 10월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2000년 2월 7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했습니다. 한발레츠는 '넌리 또는 두루 두루'라는 뜻이 담긴 순수 우리말인 '두루'로 지역통화의 이름을 정하고,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000두루는 1000원에 해당하도록 두루와 원화의 가치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회원들은 한발레츠 홈페이지(www.tjlets.or.kr)에 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동의 목록을 올리고, 제공하려는 회원과 사용하려는 회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등록소에 통보하며, 등록소는 회원들의 계정 및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합니다. 미내사fm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명의 시스템 관리자와 10명의 운영위원을 두어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리와 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발레츠의 경우도 거래는 온라인상의 게시판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196	거래전행동	· 공룡교목	조각보	2007/01/08	0	43
2195	거래요청	· 물감 2차분 주문받습니다.	모래무지	2007/01/04	0	45
2194	거래요청	· 연필작가, 유선 인터넷 공유	햇빛	2007/01/02	0	98
2193	거래요청	· 마합미요 -- [H]	국화	2006/12/28	0	85
2192	거래요청	· 고1여자아이, 초4남자아이	햇다	2006/12/24	0	63
2191	거래요청	· 34개물처리 남자아이옷 구하	초록별	2006/12/24	0	47
2190	거래요청	· 실물출매(1인용) [H]	무거지	2006/12/23	1	108

위와 같이 <거래하고 싶어요>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것이나 제공할 품목을 등록하게 됩니다. 미내사 fm과 마찬가지로 거래에 응할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생수통 필요합니다		2006-11-10 22:00:05
작성자 : 허안집		조회 1, 추천 0
주변에 살고 있는 생수통 있으신분... 하나 필요합니다. 011-436-4683		
☺ 연태: 큰거 말고 절반짜리 있는데...혹시 괜찮으시다면? --(11/11-11:57)--		
허안집		2006-11-30 00:00:00  
큰거 있으신분 없으면 작은거라도 있어해바나와 연어날 조금만 가져와 주세요..... --(11/11-23:44)--		

그리고 아래와 같이 거래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했어요] 게시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받는 이와 주는 이, 두루 액수와 내용을 등재하게 됩니다.

매것저것 거래글		2006-12-22 14:15:23
작성자 : 육장		조회 22, 추천 0
거래를 종료요.		
받는이: 줄리본 주는이: 육화 두루: 3000두루		
받는이: 국화 주는이: 육화 두루: 5000두루		

한발레츠의 경우 특정 지역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많은 단체들이 결합해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다양한 품목들로 활발하게 지역통화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발레츠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품앗이 학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고받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③ 민들레 교육통화

대안교육학교 민들레에서 운영하는 교육통화는 현실 교육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학교 정규 수업 외 교육 기회가 한정되는 현실, 한정된 공급자들에 의해 정해진 수강료로, 강의식 교습이 대부분인 학교 밖 교육의 현실, 설사 예술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다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서로 주고받아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래되는 품목은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과 지식이 다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옷 짓는 기술이라든가 빵 만드는 기술, 꽃꽂이, 악기 연주 등 수없이 많은 기술과 지식이 거래 가능합니다. 지금의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교육 서비스가 다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는 주고받기 어려운 사소한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 올라온 품목에 대해 참가자들 간에 서로 교육을 받을 내용과 시간, 횟수 등을 정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각각 50만 민들레라는 잔고 상,하한선을 두어 계좌를 운영했으며, 그만 둘 때에는 계좌를 반드시 잔고 0으로 만들어놓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품목과 서비스 거래로 일반인들이 도움을 주고받는 나눔의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들레 교육통화는, 최근에 '학습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통화라는 개념이 낯설고 어려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작은 지식을 나누는 일이 지역통화 일지라도 화폐로 거래되는 방식에 합의하기 힘들어 하기도 했으며, 거래내역을 일일이 보고하고, 확인하는 것을 번거롭게 느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통화 사용에 촉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교육통화를 학습 네트워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네트워크에서 관리자는 회원 간 연결을 돕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교환되지 않습니다. 기존 관리자는 다만 중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직접 조건을 맞추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 시간의 감수비를 오천 원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이고 실제의 결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합니다. 이처럼 지역통화는 꼭 어떤 체계나 규정된 통화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가치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④ 광명 그루

현재 광명에서 진행 중인 지역통화(그루)는 지역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된 그루의 경우 지역단체들뿐만 아니라 인쇄소, 옷가게, DC마트 등도 함께 참여하여 지역적인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명에서는 교육 품앗이라고 해서 회원들 스스로 필요한 강좌를 기획하고 교사를 초빙하는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 자발적인 학습모임이 활성화되어 평생학습도시의 건설이라는 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이 서로가 가지는 교육 능력의 거래가 다른 지역통화 운영 공동체와 연계되는 방식 즉, 다양한 서브렛츠(sublets)가 활성화되어 인터렛츠(interlets)를 만드는 지역통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품앗이 광명그루 소개

지역품앗이 광명그루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광명그루는 우리 민족의 전통 품앗이 정신을 이어가는 운동입니다.

지역품앗이 광명그루의 통화단위는 '그루(GURU)'입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를 세는 단위입니다. 인디아 말로 '큰 스승'이라는 뜻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숲을 이루는 나무들처럼 광명그루는 공동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그루통화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통장의 이름은 '광명 더불어숲 통장'입니다. 그루거래를 통해 이웃과 만나면서 광명시를 더불어 숲 공동체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2003년, 광명지역에서 활동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들이 지역통화를 이용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04년 3월 16일 정식으로 광명그루 창립총회를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광명 시민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광명그루를 만들어 가는 우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출처 - 광명 그루 홈페이지(<http://gmlets.or.kr/>)

광명 그루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

미술치료 교사 한그림 씨는 임상을 겸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업료를 그루로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루로 평생학습원의 다른 강의를 듣겠다는 아무진 꿈을 꾸다. 회원 김그루 씨는 다른 회원들의 아이를 돌봐주고 6천 그루에서 1만 그루를 받았다. 거래 상대가 누구냐,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거래 가격은 조금씩 달라진다.

지역의 한 법무사는 1주일에 하루 저녁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지역통화가 운영되면서 회원들이 그에게 '무료' 대신 2만 그루씩을 통장에 적어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가 끝이었다면 그루통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그루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배웅남: 저는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혼자 익힌 것이라서 영 늘지가 않네요?"

나눔님: 그 정도라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

배웅남: 저야 금요일 저녁 시간이 편한데...

나눔님: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는 저도 괜찮습니다.

배웅남: 그럼 몇 그루로 할까요?

출처 - 시민의 신문 2004년 10월 20일자

이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 운영방식을 취하여 지역의 자립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문화통화는 또 뭘까요?

문화통화 관련 논의들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문화통화는 문화예술의 정책적인 방향과 결합되어 문화예술과 관련된 품목을 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통화의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문화예술계의 진흥과 문화예술 창작 집단에 대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소외층에게는 문화예술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며, 시민들에게는 참여적 문화민주주의 욕구를 충족시켜 본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문화통화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해 인식을 넓힐 수 있고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문화통화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이의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재단과 지자체가 이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통화와 관련된 논의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문화민주주의(Culture Democracy)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라는 개념하에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정책적 방향을 세우고, 고급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티켓을 할인해주거나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는 방식이 그 예이죠. 하지만 문화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과 문화적 취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통화의 정신과 잘 맞물려 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혜자가 아닌 향유자 혹은 능동적인 창조자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인식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화통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4) 나눔라디오에서 문화통화란?

이 교재에서 활용되는 문화통화는 위에서 언급된 문화통화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됩니다. '나눔라디오' 수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가치를 찾아본 후, 이를 가지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아래 세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 ① 기존 화폐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통화적인 성격
- ② 교육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교육적인 가치를 나누는 교육통화적인 성격
- ③ 문화 창조 활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에 서로에게 가치를 상징하고 교환하는 문화통화적인 성격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적인 가치를 나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마움, 따뜻한 감성들이나 작은 도움 역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나누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눔라디오 수업에서 선택한 문화통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눔라디오에서 활용된 문화통화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자들 스스로 거래를 형성한다. (경제 활동 측면)

기존의 화폐 제도에서 청소년들은 자립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여 경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거나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일부 통화 시스템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확인이나 관리하에 거래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품목에서도 주고받을 만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수혜적인 대상으로서 통화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등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활동에 있어 아직은 부족하므로 성인의 관리나 체계 하에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문화통화 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통화의 체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치를 부여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들과의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성인과 청소년들 간에도 쌍방의 합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표준화된 화폐 시스템에서의 물질적 가치와 부에 대한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장기부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가치를 상징하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거래와 교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체적인 경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부터 가치를 부여합니다. (교육 활동 측면)

화폐 가치는 보통 결과물을 중심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나눔라디오의 문화통화는 상품, 검증된 형태의 교육능력, 결과물이 아닌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①학생의 출석과 수업에 임하는 태도, 수업 준비를 도와주는 행동에 대해
②강의내용에 대한 가치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③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주며 참여한 '학생들 서로 간'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가치에 대해 교환을 합의합니다. 이는 교육 현상이 다만 지식이 한 방향으로 향하는 곳이 아니라, 크고 작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교육 결과물을 다 함께 만들고 공유하면서 교육적인 성격과 가치를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수업 활동에서 서로가 가진 자원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 이에 주고받은 배(노동력)에 생산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가 노동 가치(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상대의 행위 역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과 서로에 대해 정당한 노동력을 거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화폐 경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며 그 가치의 의미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규칙화, 표준화된 가치들에만 치우칠 것입니다. 나눔라디오의 문화통화는 도움을 주고받는 나눔을 통해 거래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가치를 인정하고 재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셋째, 문화 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문화 활동 측면)

문화적인 활동들-이야기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넷 방송을 만들고-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힘으로 했을 때, 이 생산물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문화도 고급문화도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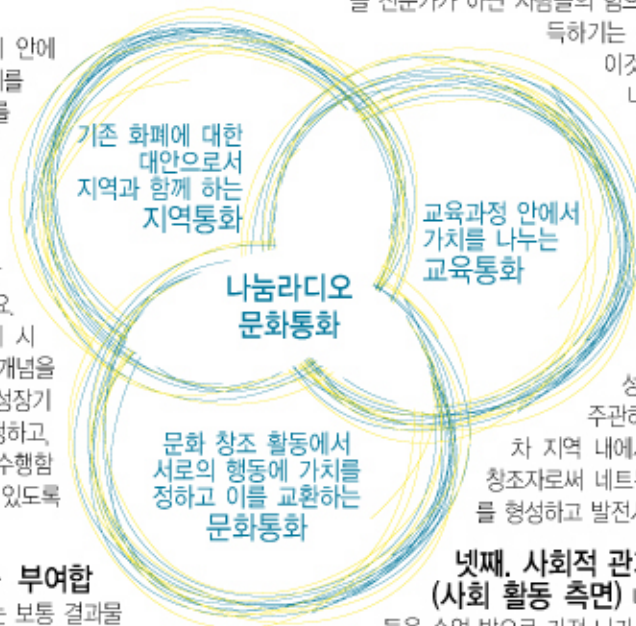
이것에 화폐 가치의 척도를 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통화에서는 작은 생산물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창조성을 인정합니다. 사소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결의 사람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부터 발로 되는 것들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나아가서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주관하는 거대한 소비문화에 길들여진 이들이 점차 지역 내에서 문화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창조자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 맺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회 활동 측면)

나눔라디오 안에서 쌓아온 문화통화의 가치들을 수업 밖으로 가져 나가서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와 통화를 통해 관계맺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화폐를 통한 보상 대신 우리는 점점 주위의 도움 요청을 꺼리고 개인의 좁은 범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통화를 통해 서로에게 가치를 청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쌍방 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가지는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거대화, 통합화, 집중화 되어갈수록 점차 작은 단위의 집합체인 마을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통화로 작은 단위들의 소통이 활성화되므로써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어 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며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새로운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무한으로 치닫는 경쟁과 개인·세대 간 단절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왜곡된 삶을 문화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 공감능력으로 회복하려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와 더불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유연한 사고력을 기르는 것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은 국가 간 민족 간 경계를 뛰어넘는 다문화 시대에 타인, 타문화와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출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아르떼의 비전/미션*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타인과 사회에 대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목표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예술교육처럼 내용 전수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감수성 자체를 그 목표로 합니다. 대상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인식하고, 사회를 체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교육경험을 통해 세상을 능동적으로 보고 즐기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존 입시위주의 주입식, 도제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교육 환경에서 길러진 표준화되고 중앙 집중적인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일상을 돌아보고 주변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와 달리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전문 예술 교사를 파견해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감대의 확장을 위해 이슈 확대에 급급하게 됐고 수용자들에게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르중심적 예술 활동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아직 대중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보편화로 파급력을 높이려다보니 본질적인 면이 퇴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현대 사회의 왜곡된 삶에 대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길러 삶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점차 단절되고 단편적이 된 타인과의 소통,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교육집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이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목표 대신, 되려 하나의 새로운 장르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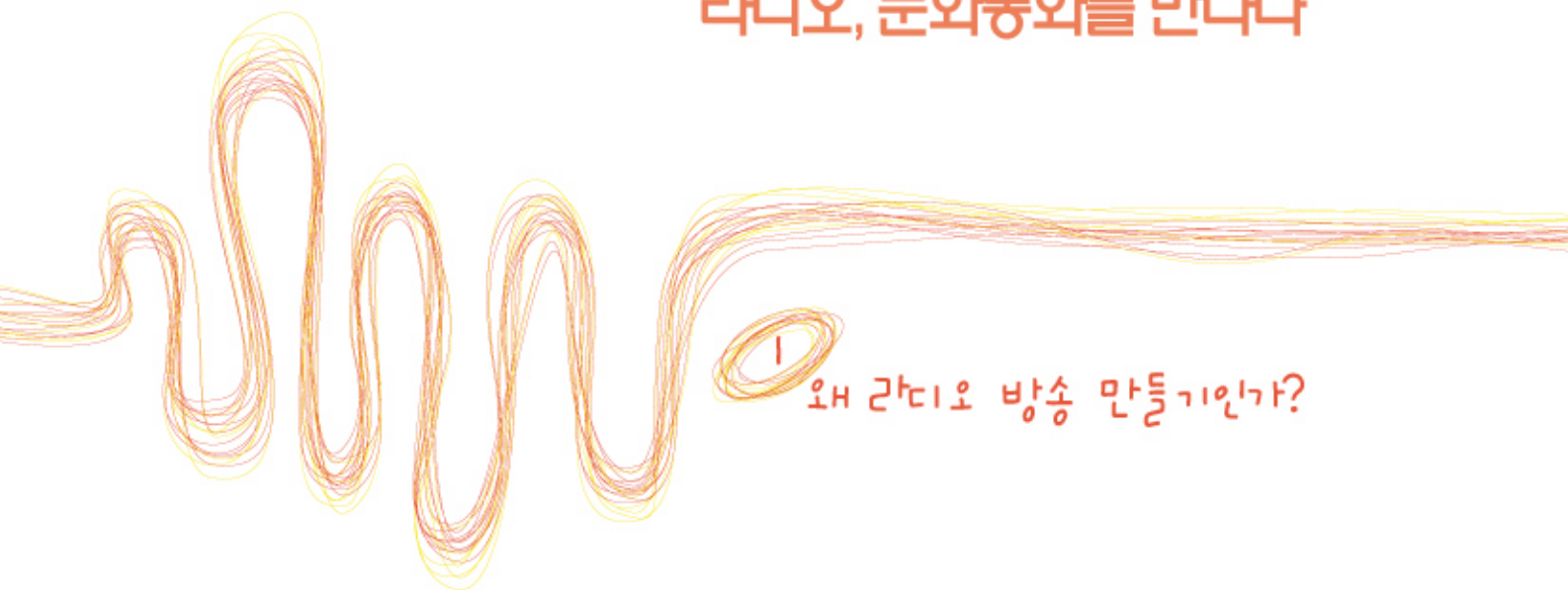
2) 문화예술교육이 문화통화교육을 만났을 때

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과 현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자들의 자발성,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각 단위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단위들과 맥락속에서 실천의 지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문화통화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통화 교육과 병행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가치의 상징이 선생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교육에서는 과정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독려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관계와 소통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의 범위를 외부로 확장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참여자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교육과 통화 교육의 결합은 참여자들 간에 상호 부조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서부터 실행, 터득함으로써 두 교육이 가지는 가치를 더욱더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문화통화교육과 결합되면 수업 안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일방향적으로 참여자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수업 진행에 있어 서로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나누면서 학생을 스스로 지식을 구하고 학생들이 협업하여 지식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지식의 가치가 교육 과정 안에 섬세하게 풀어질 수 있을 뿐더러 수용자의 동기화된 활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주체적인 행동이 시작되고 교사와의 관계도 학습-피학습을 넘어 대화를 나누고 가치를 나누는 관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는 교육 내용에 대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식과 경험으로 나가게 합니다. 결국 익명의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존재의미를 개성화,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 행위의 결과로 문화적인 창조물이 생성되고, 그것이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 활동을 실천의 지점으로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상품이 단순 소비를 넘어 창조적 문화 활동의 유의미성이 지역의 문화통화 거래를 통해 확인된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와 문화 예술적 상황을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통화교육이 지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적용되고 이를 실행하는 공동체 및 조직들이 연계된다면, 문화통화의 가치 지향성과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만나 두 '과정 지향' 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2부. 라디오, 문화통화를 만나다



1 왜 라디오 방송 만들기가인가?

1)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하여 만나는 일상

인간은 소리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청각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열리는 감각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닫히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청각은 다른 감각에 비하여 훨씬 수동적인 감각입니다. 귀는 항상 열려있으며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소리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소리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리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리 속에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가 만들어 온 시각 중심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시각 매체의 자극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수많은 이야기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라디오는 소리의 매체입니다. 듣기를 강요하는 매체이기보다 들려오는 매체입니다. 공부하며 들을 수 있고, 일하며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듣는 사람을 장악하려 하기 보다는 듣는 이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대다수 라디오 프로그램은 우리네 삶의 모습과 일상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여 듣는 이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동을

끌어냅니다. 현란하고 화려한 남의 이야기보다는 소소하고 일상적이지만 나와 우리 삶의 이야기를 녹여 낼 수 있는 것이 라디오가 갖는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주변의 일들에 대해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과 주변의 관계, 나아가 지역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교육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보는 과정은 그렇게 자신의 일상과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이며 스스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역 안에서 살아가지만 대부분 지역의 구성원으로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상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지역의 구성원으로 실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속도와 경쟁에 지친 아이들에게 느리지만 긴 호흡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적 소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가 발명된 이후로 라디오 방송은 국가가 주파수를 점유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라디오 주파수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에스키모들은 주민들 간 소통의 방법으로 라디오를 활용하기도 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렵지 않게 '지역민들에 의한' '지역민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공동체라디오'라 불리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몇 가지 제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소통을 위한 매체로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라디오 방송 만들기로 이러한 공동체라디오와 연계한다면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구성주의 교육과 나눔라디오

나눔라디오의 수업 방식은 구성주의 교육 방법론을 참고합니다.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가질 수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협업과 창조적 과정들을 위한 유효한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

사회적 구성주의자들(Cole, 1992; Lave, 1988; Rogoff, 1990; Vygotsky, 1978; Wertsch, 1991)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라는 것으로 인해 동물과 구분되는데, 사회라는 곳은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그들이 속한 세계만의 독특한 문화적, 행동적 양식을 습득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속한 사회와 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개인의 성장(인지적 발달을 포함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사회적 참여를 통한 지식의 구성과 습득의 이론적 근거로서 근접 발달의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할 영역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동료학습자, 교사, 부모)이 학습자를 도와줄 경우 개인이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처럼 교사나 동료학생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학습적 도움은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방식처럼 일방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와는 달리 안내자, 조연자(guidance, scaffolder)의 형태를 띠게됩니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완전히 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차 안내자, 조연자의 참여, 간섭을 줄여가고 종국에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학습자의 개별적 인지작용에 의한 지식 구성이라는 측면은 학습자의 학습에 있어서의 역할을 규명하게 됩니다. 즉, 기존 학습 환경에서 주어진 지식을 흡수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지식의 형성자로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습 환경도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생각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적극 발휘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아 성찰적 사고(learning by reflection)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개인적 경험, 일상적인 사건,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의 사건과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에 항상 의문을 해보고 분석을 하는 인지적 습관을 말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던 모든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 대안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인지적 사고를 해 봄으로써 이제 지금껏 그냥 지나쳐오거나 당연히 받아들이었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차원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좀 더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협동학습(learning by collaboration)입니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구성(learning)은 사회적 요소와 개인의 인지적 요소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은 반드시 학습자가 속해있는 사회 구성원간의 협동 학습적 환경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 작용 결과로서의 의미부여와 해석에 대한 검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동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자들은 특정 경험이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시각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 발달 영역' 개념 등과 연결되는 중요한 구성주의의 학습 원리입니다.

넷째, 실제적 성격의 과제중심의 학습(learning by authentic task)입니다.

구성주의는 교육과 성과(혹은 수행), 혹은 교육과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지려면 과제의 성격이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과제를 풀어가는 학습의 장은 반드시 구체적 '상황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성이 갖든 과제나 학습내용은 기존의 교과서 중심적인 것보다 인지적으로 훨씬 더 도전적이고 깊은 사고를 요하게 되며 당연히 학습자들로부터 과제에 대한 주도성과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습자의 조력자(facilitator)이며 동료-학

습자(co-learner)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지식의 전달자이며 학습의 최종적 평가자)을 학습자에게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사 역할이나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위의 자료는 다음 자료를 참고 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강인애(1997).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김종문 외(1998).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문승한 정찬기 외(1998).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특론. 교육과학사.

Lebow, D.(1993). Constructivism values for systems design : five principles toward a new mindset, ETR & D, 41(3), 4-16.

Steffe, L. P. & Gale, J.(1995). Constructivism in education. NJ: Lawrence

Erlbaum; 조연주 외 2인 공역(1997).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Tripp, S. D.(1993). Theories, traditions, and situated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3, 71-77.

Winn, W. D.(1991). The assumptions of constructivism and instructional design, Educational Technology, 9, 38-40.

3) 나눔라디오의 교육적 효과

라디오 방송 만들기가 기본적인 구성주의 교육을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문화통화는 수업 과정상 학습자의 능동적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실질적 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성주의적 교육 학습 원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육적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통화는 이러한 교육을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분명한 동기부여와 상황설정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문화통화와 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의 결합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험학습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한 체험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통화는 청소년들이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변과 관계를 맺기 위한 상황설정과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둘째, 자아 성찰적 사고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자신의 주변과 관계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과 차원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문화통화는 이러한 관계와 관심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협동적 학습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협동하고 분업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리고 문화통화는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협동과 분업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행위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실제적 성격의 과제 중심학습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자신의 일상과 실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청소년들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과 실생활이 분리되어 인식되기 쉽습니다. 문화통화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학습자의 조력자이며 동료-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조력자의 의미가 큼니다. 문화통화는 이러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 향후 청소년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4) 수업의 흐름과 교육을 통한 기대효과

단계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이후
라디오 방송 만들기	라디오 프로그램 간이 제작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서로 친해진다.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을 준비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준비한다.
문화 통화	교실 안 교실 안에서, 교사와 청소년, 청소년과 청소년 간 수업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가치를 찾으면서 '문화통화' 개념을 익히고 만들어간다.		교실 안에서 지역사회로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해 교실안에서 밖으로 관계를 확장시켜 가면서 문화통화의 가치를 찾아본다.		장기화 라디오 방송국의 상을 잡으면서 지역사회와 청소년들 간의 가치교환 관계를 현실화 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 주체성 확인**
 자신의 존재와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이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진취적 사회성 확보**
 체험과 협동 작업을 통한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이 될 수 있다.
- 미디어 사용 능력 향상**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획득하고 가치 있고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게 된다.
- 비판적 능력 배양**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능력 향상과 나아가 수용, 창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문화통화 체험**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가 아닌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문화통화교육이 가능하다.
- 공동체 교육**
 학습자가 문화통화 수업을 통해 지역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을 경험하게 된다.
- 민주시민 교육**
 Fair Exchange(정당한 교환)와 인간적 교류의 경험을 통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한다.
- 나눔과 모음**
 자기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제대로 나누고 모을 수 있는 소양을 길러준다.

5) 메뉴얼의 활용 방법

본 메뉴얼은 크게 강의계획 부분과 라디오 제작부분인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그리고 문화통화 부분인 '오늘의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강의계획 부분은 그날 강의의 목표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학습형태와 시간, 준비물 등을 제시하여 교사가 사전에 학습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 *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 방법과 교육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 '오늘의 나눔'은 문화통화에 대한 교육으로 그날의 교육 진행방법과 교육내용의 이해를 도움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 메뉴얼의 진행 흐름은 수업의 목표와 개요 등을 기술한 <수업소개>와 수업 동기화나 라디오 제작의 사전준비 작업인 <수업 들어가기>, 라디오 방송 제작에 관한 수업인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문화통화수업인 <오늘의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수업 중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덤>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라디오나 문화통화와 관련된 읽을거리는 참고자료의 형태로 넣었습니다. 메뉴얼의 활용방법은 메뉴얼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학습 환경에 맞는 강의안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문화통화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변수들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몇 가지 구성주의 수업의 원리를 견지하시며 수업을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1) 학습에 대한 책무성과 주인의식 및 자율성을 강화하라.

나눔라디오는 지속적인 자기구성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과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학습활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 협동학습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라.

학습은 대화를 통한 사회화 과정입니다. 나눔라디오에서는 협동적인 학습 환경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통한 상호교류와 반성적 사고, 생성적 학습을 촉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3) 비위협적이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라.

이녀석, 그것도 몰라!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틀렸잖아! 등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실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의기소침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며 후속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면 항상 잘못과 실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긍정적이고 구성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통해 도전감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4) 학습내용과 학습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도록 고무하라.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학습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과 학습활동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나눔>에서는 수업의 성과와 학습활동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제 수업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라.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평가를 목표의 성취 여부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지식의 단순한 파지와 시험이라는 제한된 맥락에서의 적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구성주의 수업에서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등의 고차원적인 교육 목적의 성취와 복잡하고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능동적인 활용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나눔>시간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교수-학습 원리의 구현을 위해서 나눔라디오에서는 교사가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 수업의 일방적인 관리자, 감독자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촉진자, 조연자, 자문인, 코치, 나아가 동료 학습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3부. 나눔라디오 강의 매뉴얼



프롤로그

할 말 많은 청소년들 라디오를 만나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영화 '라디오스타'를 보고 나온 아이들)

수민 영화 어땠어?

우재 지루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재미있던데.

성식 난 영화 초반엔 조금 졸렸는데 나중엔 집중하게 되더라.

가람 나도 라디오 방송해보고 싶다.

수민 정말! 어른들 이야기 말고 우리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 있으면 좋겠다.

우재 내가 DJ를 하는 형을 아는데 그 형은 인터넷으로 음악방송을 하던데.

우리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민 그래도 기초지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가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웬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정도의 유머감각과 목소리면 DJ에 어울리지 않을까?

성식 쿵! 돼지 먹따는 목소리로 DJ라니. 저팔게가 웃겠다.

우재 그래도 개성있는 목소리잖아.

수민 자꾸 이야기 하나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신기한 라디오와의 만남

수민 에! 저게 뭐지 고장난 라디오인 것 같은데?

우재 정말 누가 버렸나보다.

성식 근데 정말 오래된 라디오인가봐.
고장나서 누가 버렸나보다.

가람 라디오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우리 눈엔
라디오만 보이니까.

수민 꼭! 그러게, 그마저도 한번 켜볼까?

(지직직... 지직...)

고장난라디오 아~ 참 오래 잠을 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잔거지.

수민 어라! 이 고물 라디오 고장 난 게 아닌가봐!

고장난라디오 고물이라니! 건전지가 떨어져서 잠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뿐인데.

가람 그런데 이 라디오 좀 이상하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

우재 정말! 라디오가 아니라 무전기인가?

고장난라디오 무전기라니! 무전기가 사촌이긴 하지만 난 엄연히 라디오야.

성식 라디오에 귀신이 들렸나봐.

고장난라디오 날 깨워줘서 고맙긴 한데 점점 이상한 쪽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존심 상하거든!

아이들 우와~!!

수민 라디오가 말을 하네.

고장난라디오 흠! 너희들 내가 말을 해서 놀렸니?

가람 그럼 라디오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 놀랄 수 있어.

고장난라디오 그런데 올 해가 몇 년쯤이지?

성식 그건 왜 물어?

고장난라디오 글썄 궁금해서 그래. 올해가 몇 년도니?

우재 2006년

고장난라디오 이런 박사님이 실수 하셨군. 소혹성 B612로 갔어야 하는데, 과거로 와 버렸네.

수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사님은 누구고 소혹성은 뭐니?

고장난라디오 너희들에겐 신기하겠지만 난 미래에서 왔어.

그러고 보니 내가 살던 시대에서 정확히 100년 전이네! 박사님의 공간이동장치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군.

가람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정리를 좀 해보자.

네가 말하는 박사님이 공간이동장치로 널 소혹성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 돼서 과거로 왔다?

그럼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거야?

고장난라디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타임머신이라기보다는 시간이동장치라 해야 정확할 거야.

우재 애 말을 믿어야 하는 거야?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

가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것 같아.

고장난라디오 이봐! 난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미래에서 왔다구.

수민 그래도 어떻게 라디오가 말을 하니?

고장난라디오 아~ 미안! 너희들이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란 걸 깜빡했다.

상상이 안되겠지만 내가 사는 시대에는 나같은 라디오는 정말 흔하거든.

성식 그럼 네가 미래에서 왔다는 증거를 대봐!

고장난라디오 참 의심이 많은 아이들이로군!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 할 테니.

우재 정말인가봐. 우와! 신기하다.

고장난라디오 이제야, 좀 믿는 것 같군. 그럼 내 소개를 정식으로 하지. 내 이름은 TS502라고 해. 우주 방송을 위해 개발되었어.

1964년 리처드 새퍼(Richard Sapper)와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가 디자인한 브리온베가(Brionvega)사의 TS502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붙었지. 난 거의 대부분의 우주어를 번역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우주 어느 곳에서 하는 방송도 들을 수 있어. 미래에는 우주인이라면 누구나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거든. 라디오를 통해서 우주어로 하는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단다. 말만하면 어떤 방송이든지 쉽게 찾아서 들려줄 수도 있어.

가람 그런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고장난라디오 아까 말했잖아. 사고라고. 난 소혹성 B612에 사는 우주인이 구입해서 공간이동장치로 배달되는 중이었어.

그런데 주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군.

우재 그러면 돌아 갈 수는 없는 거야?

고장난라디오 글썄 모르겠어. 박사님이 내가 배달되지 않은 걸 아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

박사님께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너무 엉뚱한데 떨어져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시간이동을 하면서 건전지가 방전이 됐나 보군.

성식 그럼 일단 우리 아지트로 돌아가자 새 건전지를 넣어 줄게.

고장난라디오 그럼 조금만 신세를 질까?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내가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없니?

수민 네가 뭘 도와 줄 수 있겠어. 이러쿵저러쿵 해도 난 말하는 라디오일 뿐이잖아.

고장난라디오 또 무시하네. 이래보여도 난 지식창고란 말이야. 너희들에게 어떤 정보라도 제공 할 수 있어.

성식 그럼 이번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 좀 알려주면 안될까?

고장난라디오 과거의 데이터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건 알려줄 수 없어. 좋은 목적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성식 피! 어떤 정보든 알려준다더니 거짓말 하는 거 아냐?

수민 그럼 라디오 방송 만드는 법을 알려 줄 수 있어? 요즘 우리 아지트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

고장난라디오 라디오 방송?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 그 전에 빨리 건전지를 넣어줘야 할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파데.

수민 알겠어. 그럼 빨리 아지트로 가자.

고장난라디오 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할 게 있어.

어른들한테는 나에 대해서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어른들이 알면 날 분해하거나, 팔려고 할 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새 주인 얼굴도 못 보고 이곳에서 평생 살아야 할지 몰라. 아 이젠 정말 힘이 없다.

(지직... 지지직...)

우재 꺼졌나봐. 정말 신기한 라디오를 발견한 것 같아.

가람 빨리 아지트로 돌아가서 새 건전지를 넣어주자.

할 말 많은 청소년들 라디오벤추라를 만나다.

아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 어서들 와라. 그런데 그 고물 라디오는 뭐니?

수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길래 주어왔어요.
요즘 저희가 라디오에 관심이 많아서요.

선생님 그래? 꽤 오래된 라디오 같은데. 작동이 되거나 할까?

그래도 참 예쁘게 생긴 라디오구나.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좋겠는데.

가람 헤헤! 일단 작동이 되는지 보구요. 안되면 장식용으로 사용하세요. 선생님 혹시 건전지 있어요?

선생님 응.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맞다. 공부방 서랍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

아이들 네~!

(지지작... 지지작...)

고장난라디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아까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

수민 그런데 어떻게 라디오 방송 만드는 법을 알려 줄 건데? 설마 네가 알려주는 건 아닐테고.

고장난라디오 급하기도 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주제로 검색해 볼게.

그 전에 너희들은 왜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니?

그걸 알아야 너희들에게 맞는 정보를 줄 수 있거든.

우재 우리 아지트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성식 어른들이 만든 라디오 방송보다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가람 우리들의 불만이나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싶는데 그런 공간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우리가 다루기에 쉬울 것 같아.

고장난라디오 그렇구나. 정보 입력 완료! 빠리빠리... 빠리빠리 찾았다!!

TS502 라디오 모드로 변경. 지금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은하계명 Ace, 행성명 Ven, 국가명 Tura에서 송신합니다.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성에서 라디오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라디오 방송듣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아이들 우와!! 외계인인가봐!

수민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가람 저쪽에서 했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수민 우리는 은하계명 우리 은하계, 행성명 지구, 국가명 한국 그리고 모람아지트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려고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나눔라디오 아! 그렇군요. 저희랑은 5천만광년 떨어져있네요. 꽤 가까운 곳에 계시는 군요. 그런데 모람아지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수민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쉴 수도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눔라디오 그렇군요. 그런데 '청소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가람 지구에서는 보통 성인이 되기 전 13세에서 20세의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나눔라디오 지구별은 재미있군요. 우리 행성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갖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아무튼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들을 찾으신 거죠?

아이들 네~!

나눔라디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와 몇 가지 약속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재 원데요?

나눔라디오 교육을 받으면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성식 서약서를 어떻게 받아요?

나눔라디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라디오를 컴퓨터에 연결 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민 어떻게 연결하지?

가람 어! 여기 컴퓨터랑 연결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연결해 볼게. 아싸~! 연결됐다.

고장난라디오 TS502 자료 수신모드입니다... ..자료 수신 완료.

나눔라디오 이 교육 프로그램의 탄생배경과 서약서를 보내드립니다.

잘 읽어 보시고 교육을 받고 싶다면 서약서에 서명 후 보내주세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우재 우와~ 대단한데! 우리가 지금 외계인한테 교육을 받는 거야?

성식 이 이상한 라디오 정말 신기하다.

고장난라디오 이상한 라디오라니! 우주에서 최고로 훌륭한 라디오 방송을 소개시켜줬더니.

성식 최고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지. 그나저나 자료는 아직 송신이 안 된거니?

고장난라디오 지금 수신된다. 컴퓨터로 출력 해 줄 테니 모니터를 봐.

발신 : 나눔라디오 방송국 / 수신 : 모람아지트

1. 교육프로그램의 탄생배경

행성 Ven은 지구보다 약 100년쯤 앞선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으로부터 100년 전 Ven은 후기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보다는 경쟁과 성장 그리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법, 도우며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Ven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식을 교육받았고 힘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거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

복한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Ven의 청소년들은 라디오를 통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교류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고 협동하는 법을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라디오 방송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점점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그런 소통과 나눔 그리고 협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구의 현재 모습이 Ven의 100년 전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앞으로 소통과 나눔의 정신을 이해하고 널리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서약서

첫째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나눔라디오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은 나눔라디오 교육을 통해 소통과 나눔, 협동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나눔라디오 교육 기간 동안 나눔통장을 성실히 작성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의미있게 거래하겠습니다.

성식 원가 막중한 임무를 띤 것 같은데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람 뭐 어때~ 라디오 방송 만드는 법만 배우면 되지, 보이지도 않는데,

수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을까? 모두들 어때? 자신 있겠어?

우재 좀 낯설지만... 원가 특별하고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수민 그래! 그럼 빨리 서명해서 보내자.

나눔라디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당신들은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군요, 부디 끝까지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방송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방송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럼 나눔 방송국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 정말 신기하다.

고장난라디오 어때 재미있지?

수민 응. 그렇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하면 라디오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약간 긴장도 된다.

성식 아직도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고장난라디오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한 번쯤 날 믿어봐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

그나저나 벌써 건전지가 떨어졌나보다. 그럼 내일 보자

안... 지지직...냉...지직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라디오 이야기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쯤에서 나의 멋진 모습과 내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지.
그전에 라디오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도록 할까?
라디오가 처음 발명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에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란 사람이 전파를 이용한
통신장비를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물론 지금의 라디오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들
에게는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어.

라디오의 모습을 갖춘 장비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20
년대부터 였단다. 당시에는 군부대에서 통신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었지. 그후 라디오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용도가 다양해지며 널리 보급 되었단다.

처음 라디오가 출시 되었을 때는 집집마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첨단 기술을
가졌기에 인기가 대단했었지. 지금에야 라디오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말이야.

아 옛날이여~

흠흠. 그럼 이제 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할까?



1964년 브라운베가(Brionvega)사의
TS502 제품

* 트랜지스터란?

1948년 미국 벨 전화연구소에서
발명한 것으로 반도체 시편에 가는
도체선을 접촉시켜 주면 전기신호를
증폭해 줍니다.

이전까지 사용되던 진공관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소형이어서 사용하는 기기를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전력이 적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1939년 포놀라 모델로 (Radio Phonola modello)사의
547 제품

이 친구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 지금의 라디오랑은
모양이 많이 다르지? 잘 보면 주파수를 표시하는 것도
자동차 계기판처럼 바늘로 표시가 되어있지.
물론 나보다 멋있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한 인기했던
친구란다.



1965년 라디오마렐리(Radiomarelli)사의
RD231 제품

아마 옛날 영화 같은데서 본적이 있을 거야.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법으로 유명했던
친구거든. 이 친구가 태어났던 1960년대는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발명되어서 라디
오가 많이 변했던 시기란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란다. 멋지지 않니?

난 1964년도에 태어났지. 당시에는 사람들이

라디오 디자인에 큰 획을 그었다고 칭찬이 자자했어.

하하.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널리 판매가 되고 있단다.

내 이름이 고장난라디오지만 성능은 무시하지 말라고~

1940년 밤(VAMM)사의
가레나(Garena) 제품

오호 이 친구는 모양이 정말 개성 있지 않니? 언뜻 전화기로 착각할 수 있겠군.
바닥에 있는 둥근 다이얼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란다. 당시에는 전력을 충분히
사용하기 힘들어서 손잡이로 동력을 얻는 모터도 달려있지.
나이가 많은 친구지만 단단함을 장점으로 오랜 기간 함께하고 있는 친구란다.



여행갈 때나 소풍갈 때
필수품으로 따라다니던 녀석이군.
덕분에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했던 다른
라디오들에게 질투를 많이 받았었지. 조금 무겁긴 했지만
야외에서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었지.



1970년 스쿨라 라디오 엘레트라
(Scuola Radio Elettra)사의
412 제품

요즘 너희 시대에 나오고
있는 라디오들은 기능이
거의 비슷하단다.
사람들에게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특이한
디자인을 갖춘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 중 신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를 소개해
줄게.



티볼리 오디오(Tivoli Audio)사
원(One) 제품

자 이제 마지막 친구구나.
요즘 이 친구가 제일 인기 있는 녀석이야. 그냥
볼 때는 다른 친구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이 녀석의 장점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란단다.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워낙 멋진 외관을
갖춘 라디오를 좋아해서 탄생했지. 겉을 벗나무,
호두나무, 단풍나무 같은 자연무늬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우리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친구란다.

어때?
다른 친구들보다
디자인이 특이하지?
이 친구는 안쪽의 구조는 다른
라디오와 비슷하지만 겉은 보들
보들한 고무로 되어있단다.
혹시나 떨어져도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사람들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해주는 배려심이 많은 친구지.



지금까지 소개한 친구들이 나랑 특이나 친하게 지내는
녀석들이었던단다. 우리벌에는 내가 소개한 친구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만
소개해 준거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MP3나 CD플레이어, DVD플레이어 같은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친구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워낙 서로 다툼이 심해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우리들은 라디오라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단다. 내가 살고 있는 2100년대에도 여전히 라디오는 멋진
모습으로 우주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단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더니 벌써 건전지가 다 됐네. 지지직...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지지. 칙....



첫 번째

나만의 라디오 광고 만들기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보내드린 교육 자료는 잘 보셨나요? 아이들 네~ **나눔라디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자신의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자기소개는 부담스러운데... **나눔라디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부담스러운 자기소개 말고 라디오 광고를 통해 자기소개를 해볼 테니까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수업주제	나만의 라디오 광고 만들기(라디오 광고로 나를 소개하기)			
준비물	A4용지, 필기도구(볼펜, 매직, 크레파스, 파스텔 등), 녹음기, 스피커, 컴퓨터,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라디오 광고를 통한 자기소개를 해본다. 문화통화 : 문화통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식을 정한다.			
활동내용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형태	소요시간
	수업 들어가기	1. 수업 소개 1) 광고에 대한 선유경험 파악 2) 재미있는 라디오 광고 소개 3) 전체적인 수업의 내용과 수업의 흐름에 대한 소개	*	2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라디오 광고로 자기 소개하기 1) 단어를 뽑아 사물의 특징과 자신의 특징을 연결시켜보기 2) 광고로 자기소개하기 위한 카피 작성 (15~30초 분량) 3) 작성한 카피를 녹음하고 다함께 들어보기	+	40
	오늘의 나눔	3. 문화통화 소개 1) 영상보기 : 가치의 나눔을 소재로 한 영상을 보며, 나눔의 가치에 대한 생각해보기 2) 문화통화에 대한 소개 : 문화통화 개념 및 가치 나눔에 대한 설명 3) 문화통화의 단위 정하기 4) 나눔통장에 대한 소개와 관리 방식 알려주기	*	40
		4.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오늘 한 일을 생각해보고 이를 친구들과 상의 후 나눔통장에 가치의 주고받음을 기입한다.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나눔라디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눔라디오 만들기는 주변과 일상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상은 관계의 연속이며 관계는 나의 존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혼난 일이며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에게 혼난 일, 혹은 친구들과 신나게 장난친 일들이 관계 속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위한 첫 만남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일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첫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쑥스럽지 않게 나눔라디오를 매개로 자신을 알리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관계들은 라디오 방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업 전 준비사항〉

1. 단어 쪽지 만들기

청소년들에게 익숙하고 단어의 특징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합니다. 가능하면 명사를 적도록 합니다.

2. 제비뽑기 준비

단어가 적힌 쪽지를 접어서 검은 색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 제비뽑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1. 광고에 대한 선유경험을 파악

기억에 남는 광고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광고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 재미있는 라디오 광고소개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라디오 광고나 요즘 잘 만들어진 라디오 광고를 몇 가지 준비하여 다함께 들어봅니다.

3. 수업에 대한 설명

자신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디오 광고를 활용하려는 수업 의도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 보는 시간임을 설명해 줍니다.

❖ 라디오 광고로 자기소개하기

라디오는 영상매체에 비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소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남은 언제나 약간의 어색함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더욱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부담감을 없애고 자신을 멋지게 소개해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자신의 어떤 면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고 자신의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단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과정은 주변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눔라디오에서 청소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을 둘러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즉 '반성적 사유'의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1. 제비뽑기함에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단어를 뽑도록 합니다. 2. 뽑은 단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특징이나 장단점 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3. 파악한 사물의 특징과 자신을 연결시켜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카피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예: '언필' ㉠검은 마음을 숨기고 있는 000입니다) 4. 카피 외에 자신의 닉네임이나 그 밖의 소개 내용을 추가하여 광고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5. 각자의 광고를 녹음합니다. 6. 녹음 과정에서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배경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녹음한 작품을 다함께 감상합니다.

답

* 처음 단어를 선택한 후 카피작성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편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 해주시면 청소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부분 청소년들이 광고 문구를 만드는 작업보다 실제로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녹음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으니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사례】 라디오 광고로 자기소개하기

* 초록색 단어는 선택한 쪽지에 적힌 단어입니다.

수민 :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의 유용한 정보를 알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핸드폰**처럼 넓은 정보망과 빠른 입을 가진 수민입니다. Have a good time.

다혜 : 하하하하하 피웅~ 하이바 안녕하삼. 저는 나름 느낌 있는 필링의 여자 닉네임 '벌' 입니당. 가끔 **다람쥐**처럼 도망을 잘쳐서 욕을 먹긴 하지만요, **리모컨**처럼 말 잘 돌리구 바뀌서 암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전 디딤돌의 '벌' 이에요.

우재 : 저는 **고양이**처럼 담을 잘 타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민 : **슬리퍼**처럼 질질 끌리고 묵신묵신한 지민. 저를 신어보세요. 뽕뽕

하연 : 안녕 닉네임 하하예요, 천재는 1%의 가능성으로 만들어진다. **단풍나무**, 나는 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여자보단 조금 큰 키를 가져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한다면 내게 기대도 좋습니다. 하하하! 기다리고 있을게요. (배경음악 : 성시경의 거리에서)

성식 : 안녕하세요, 저는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윤성식입니다.

상철 : 저는 **밤**이라는 쪽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맛이 있어서, 나는 밤을 닮아 맛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성 : **강아지**를 닮고 싶은 이진성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귀엽기 때문에 강아지를 닮고 싶습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준비사항〉

1. 나눔통장 준비

통장의 형태와 사용법을 설명 합니다.

2. 나눔통장 사용법

출금 내역: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눠 받은

가치를 위해 지급한 통화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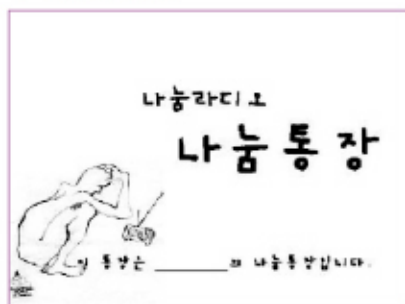
입금 내역: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 준 가치로

인해 지급 받는 통화의 기록

잔고: 잔액+입금-출금=잔고

오늘의 나눔 느낌: 가치를 거래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적는 란.

* 나눔통장 표지



* 나눔통장 속지

날짜	출금 내역 (내가 받은 가치)	입금 내역 (내가 준 가치)	잔액	오늘의 나눔 소감

나눔통장 첫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첫 시간에 문화통화와 나눔통장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주시고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가치를 교환하고, 나눔통장을 통하여 나눔 가치를 정리할 수 있도록 초반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중 첫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나눔통장을 기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나눔라디오와 나눔통장은 별개의 수업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결과를 향한 과정이며, 그 이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나누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모으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거래하고 활용하였는지가 중요함을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눔〉

1. 나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감상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감상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봅니다.

2. 문화통화에 대한 소개

문화통화에 대한 설명과 문화통화로 가치를 나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3. 문화통화 단위 정하기

나눔과 가치에 대해 각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통화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4. 통장운영 방식 설명

거래방식 및 통장 기입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덤

* 서로 입금과 출금 방식을 알고 나면 대부분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거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거래의 내용이나 내역 등이 눈에 보이는 가치나 현물 거래용이 아니다보니 중요한 가치로서의 인식이 아직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부분입니다.

《수업사례》

통화 명칭 정하기

문화통화와 가치단위에 대해 연상을 해보자.

'나눔' 하면 떠오른 것은? **현우오빠, 쿨, 공사, 사회복지사, 애기, 술, 그지, 구걸, 앵벌이, 동냥, 마음**

'라디오' 하면 떠오르는 것 혹은 바라는 것은? **음악, DJ, 안테나, 소리, 돈, 방송, 채널, 주파수**

나온 단어들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 골라보자

'주파' '소마(소리+마음)' '소리(술)' '굴'

○ '술' 이 최종 통화 명칭으로 정해짐. 술의 의미는 소리의 줄임말.

의미 정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는 뜻의 줄임인 '술', 소리는 혼자 가질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나누는 우리만의 화폐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장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

* 최소의 가치 기준은 '한 술'로 정한다. * 최초 중앙은행(교사)에서 각각에게 삼십 술을 제공하면 입금내역에 '중앙은행에서 삼십 술 입금'이라고 적는다. * 내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출금내역에, 도움을 준 것은 입금내역에 기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 이유를 반드시 적어준다. * 수업을 하면서 도움 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보고 합의가 된다면 함께 기록을 하게 된다. * 오늘의 거래를 보고 이를 통해 바뀌었거나 생각나는 점을 '나눔느낌 란'에 적어주면 된다. * 이후 이 가치가 모이게 되면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1월 7일	중앙은행 입금 +30술	30술	처음 왔다. 떨렸는데 기분 좋은 만남이 있었다. 다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혜에게 처음 만나서 반갑다고 -2술	28술	
	○○생이 반갑다고 +2술	30술	
	첫 수업 시작기념으로 ○○생이 +1술	31술	

* 첫 수업, 모람 아지트에 처음 온 지민이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다혜라는 아이와 친해지게 되어 그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에 '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도 지민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반가움의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이는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 : 오늘 친구에게 받은 내용이 기억나는 사람?

다혜 : 내가 녹음할 때 하연이가 옆에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가치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교사 : 다혜가 오늘 처음 온 지민이에게 '우리 친구하자'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러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지민 : 다혜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두 술을 주고 싶어요.

다혜 : 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야?

교사 : 가치의 표시를 너무 크게 잡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수민 : 이것은 라디오 수업할 때만 쓰세요?

교사 : 당장은 수업 내에서만 거래를 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거야.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라디오 이야기

눈은 TV 중계 쫓아도 귀는 라디오 쫓긋! 스페인 축구팬의 라디오 사랑

축구가 종교에 가까운 스페인에서 축구경기를 즐기는 법은 이색적이다. 프리메라리가 20개 팀은 매주 10경기를 치른다. 이 중 한 경기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나머지 9경기는 돈을 내는 유료방송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통상 가정에서는 경기 당 10~20유로(1만2천~2만4천원)를 내야 하는데, 명문 레알 마드리드나 FC바르셀로나의 경기는 가장 비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 근처 바를 찾아가 맥주 한 잔과 간단한 타파스라는 안주를 먹으며 축구를 본다. 바 주인은 이 때 텔레비전의 소리를 죽이고, 라디오를 켜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 중계 해설위원들의 멘트보다는, 생동감 넘치는 라디오 중계가 훨씬 재미있고 자세하기 때문이다. 라디오는 다른 경기장 정보도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각 경기장을 돌면서 그 경기의 흐름을 알려주고, 골이 터진 경기장 리포터의 박진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준다. 골~~~ 이라고 환호를 하는데 최소 10초간은 지속된다. 동시에 다른 축구장에서 골이 터졌을 때엔 그 경기장으로 화제를 돌린다. 라디오는 경기장의 필수 휴대품이기도 하다. 경기장에서는 전광판에 경기를 생중계로 보여줄 수 없다. 때문에 많은 팬들은 소형라디오를 휴대한다. 다른 경기장에서 라이벌팀이 지고 있다면 보고 있는 경기와 무관하게 관중들이 환호를 한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라기도 한다. 그때는 전광판에서도 라이벌팀이 지고 있다는 안내문자가 나온다. 주말 경기에서 이기면 월요일부터 상대팀 팬들에 대한 월등함을 뽐낸다. 항상 레알마드리드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자기 팀이 이겼을 경우 최고의 팀이 되지만, 질 경우 레알 마드리드팬들의 조롱에 시달려야 한다. 라디오 청취 축구팬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따라붙는다. 라디오 중계 중간 중간에 광고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런 광고를 해설위원이 한다. 해설위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경기가 짜증나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할까요?'라는 식으로 광고를 넣는다. 텔레비전에서도 경기 전반이 끝나기 전에 해설위원은 갑자기 'OO피자에서 새로 나온 피자 정말 맛있다'고 말한다. 라디오 중계는 1부 리그 외에도 2부 리그나 지역 리그, 심지어 다른 나라 리그 결과까지도 알려준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스페인 축구팬들은 누구나 다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출처 - 한겨레 <스티브 김의 스페인 통신>

나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수업주제 나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나만의 음악 방송 만들기)

준비물 A4용지, 전지, 필기도구(볼펜, 크레파스 등), 오디오 믹서, 스피커, 마이크, 컴퓨터,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자신을 주제로 한 음악방송 프로그램 만들어 본다.
문화통화 : 수업을 통한 문화통화 개념의 이해하고 친구들과 가치를 찾고 나누어 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활동내용	수업들여가기	1. 여정지도 그리기 1) 나의 인생 여정 돌아보기 2) 여정지도 그리기	✚	4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여정지도를 통한 음악방송 만들기 1) 내 삶의 주제곡 선정 2) 나의 여정지도를 소개하는 간단한 대본 작성(분 내외) 3) 여정지도의 내용과 선정한 주제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 4) 함께 방송 듣고 소감 나누기	✚	60
	오늘의 나눔	3.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2) 의미 있는 가치에 대해 서로 상의 후 거래하고 나눔통장에 기입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군요. **아이들** 안녕하세요! **나눔라디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소재로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민** 내가 라디오 방송의 소재가 될 수 있나요? **나눔라디오** 물론이죠. 우리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그 소재를 확장시켜 보는 거죠. **우재** 그런데 나의 무엇을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만드나요? 워낙 제 인생이 복잡해서 말이에요. **나눔라디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업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되셨죠? **아이들** 네~!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나눔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나'를 소재로 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앞으로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상과 주변을 돌아보기에 앞서 잠시나마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것보다 자기의 삶과 일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둘러보는 과정으로 여정지도를 그려봅니다. 여기에서 소재를 잡아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이나 여정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본다는 것이 이 수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과 연관된 이야기만 가지고도 쉽고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을 만들 수 있음을 경험 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전 준비사항>

1. 여정지도 그리기 준비

- 1) 전지나 색 도화지 등을 인원수에 맞게 준비합니다.
- 2) 자기에게 맞는 재료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도구를 준비합니다. (크레파스, 매직, 파스텔 등)
- 3)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잔잔한 배경음악을 준비합니다.

2.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준비

- 1) 책상과 마이크, 스피커를 활용하여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개 방송용 스튜디오를 구성합니다.
- 2) 친구들 앞에서 방송하는 것을 어색해 한다면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앞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 3) 방송하는 내용을 mp3플레이어나 컴퓨터에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1. 여정지도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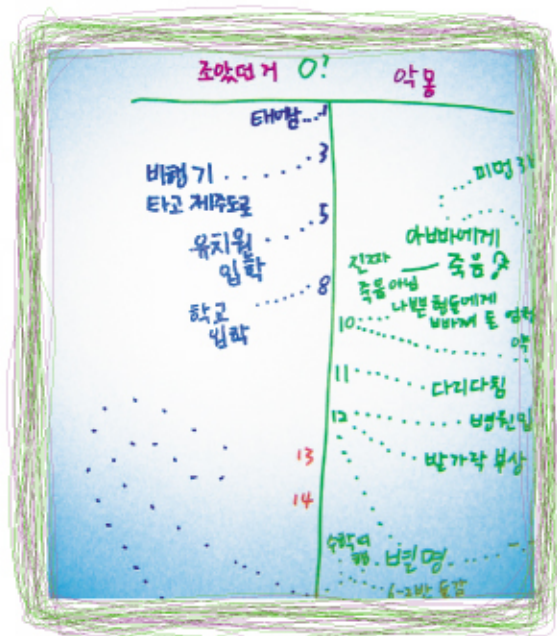
1) 나의 인생여정 돌아보기

- ① 편안한 분위기에서 눈을 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 ② 자신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 ③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미래에 대해서도 떠올려보게 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바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2) 여정지도 그리기

- ①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여정지도로 그려보게 합니다.
* 지도 그리는 것을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기쁜 일과 슬픈 일 세 가지를 적어보게 하거나 혹은 오늘 일어난 일 등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여정지도를 시각화하도록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② 자신의 여정 지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의 주제곡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수업사례> 여정지도



❖ 나만의 라디오 방송 만들기

여정지도를 그리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정지도를 통한 나만의 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라디오 광고 만들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기소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종 청소년들의 감각이나 창의력에 놀라기도 합니다.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끌어 주셔야 할 부분은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잘 만들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과 한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송을 잘 만들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이끌어 주세요.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여정지도를 통한 음악방송 만들기

1) 대본 작성하기

- ① 자신의 인생여정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 ② 자신이 선정한 주제곡을 배경음악으로 여정지도 소개 글을 1분 내외의 대본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2) 방송하기

- ① 방송은 교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 ②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예:배경음악을 틀어주거나 녹음하는 일 등)
- ③ 방송을 시작하고 다함께 청취합니다.
* 나눔라디오에서는 방송을 할 때 실제로 FM 송신기(차량용 무선 카팩)와 소형 라디오를 활용하여 방송을 송신하고 소형 라디오로 방송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송 방식의 장점은 청소년들에게 라디오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다른 친구들의 방송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 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친구들이나 교사에게 도움을 받은 것과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문화통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문화통화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시간을 통하여 친구들과 가치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대본 작성이나 방송을 할 때 친구들과 협동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친구들과 혹은 교사와 어떤 가치 나눔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한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1월 14일	수업참여 +3솔	34솔	노래 쿨하면서 ○○생에게 도움을 받았다. 즐거웠다.
	○○생에게 수업에 도움을 받아서 -1솔	33솔	
	수업 열심히 들었다고 ○○○생이 +1솔	34솔	
	하연이가 수업 설명에 도움을 줘서 -2솔	32솔	
	진성오빠가 모둠활동 열심히 했다고 +5솔	37솔	

* 두 번째 시간부터는 수업에 출석을 하면 3솔씩을 주었습니다. 수업은 의무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민이가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과 많은 가치를 나눴네요. 수업 활동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도움에 가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교사 : 오늘 수업 내에서 선생님과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수업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보다 출석을 해야 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수업에 출석을 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3솔씩 나갈 거야.

모람 아지트의 청소년들은 이미 문화통화를 별 어려움 없이 잘 거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업 외적인 시간에 받은 도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거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교사와 주고받은 거래가 많이 기록되었는데 학생들은 수업진행시 조언에 대한 도움을, 교사는 학생의 수업 참여 열의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문화통화 이야기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의 '코로나'

지지직... 하하 다시 튼튼한 건전지로 충전하고 돌아온 고장난라디오 올시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까 고민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잤네. 예구 졸려라. 잠도 잊어가며 준비한 오늘의 얘기는? 바로바로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에 관한 이야기란다. 벤포스타를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 내가 왜 벤포스타 얘기를 할까? 첫째, 혹시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나눔라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통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때는 1956년의 여름,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작은 기적은 시작된 것이지.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라는 무서운 독재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어. 스페인 국민들은 독재자의 횡포때문에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졌지. 어린이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힘든 가정에서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실바 신부라는 분이 어렵게 생활하던 아이들 15명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이 아이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주었네. 아이들은 14, 5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보자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벤포스타가 된 것이지. 벤포스타는 어린이들 스스로 모든 것을 꾸려가는 어린이 공화국이야. 네 살에서 열다섯 살 사이의 어린이라면 종교나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나 주민 될 수 있지. 각 행정구역마다 시장도 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분야 등에 장관도 있어. 어린이들 스스로 선출하고 역할을 맡게 되지. 법도 아이들이 직접 세운다지? 신기하지 않아? 벤포스타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학교에 가서 돈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벤포스타에만 있는 특별한 수련 활동인 '큰 모험'이라는 것이 있지. 큰 모험이란 병원에서 한 달, 고기잡이 배에서 한 달, 교도소에서 한 달, 구걸하면서 한 달 등 1년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과정이야.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한 벤포스타만의 특별한 체험 과정이지. 혹시 '무차초스 서커스단'이라고 들어봤어? 여태까

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한 벤포스타의 유명한 서커스단인데, 백여 명의 곡예사들이 여러가지 테마로 화려하게 움직이는 화려한 공연이야. 조만간 한국에도 온다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라구. 이쯤에서 내가 벤포스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지. 벤포스타에는 그 곳에서만 쓰이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거야. 코로나를 벌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노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수업에 참여해야 해.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를 벌어야만 하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생각나는걸? 코로나는 어른들이 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거나 어른들이 정한 화폐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지. 어린이들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통화랑 비슷하지? 문화통화도 스스로 가치를 정해서 서로 그 가치를 나누는 것이잖아. 설마 아직 문화통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저 멀리서 어린 친구들이 그들끼리 정한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정한 가치에 따라 서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작은 어린이 공화국의 시작이 아니겠어? 애 그럼 외부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구입하고? 아까 얘기했던 무차초스 서커스단이 공연을 한 수익금과 도자기 공예, 방송대학 운영을 통해 수입을 벌어서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고 하더군. 처음 벤포스타는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남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어때? 이쯤이면 벤포스타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음 오늘도 너무 열심히 설명했더니 벌써 힘들다. 짜지직...지직...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책을 찾아보길 권장해.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보리)나 〈어린이 나라 벤포스타를 찾아서〉(한마당)라는 책이 있어. 벤포스타를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니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야. 또 보자구. 지지직...차...



세번째 스스로 장비사용법 익히기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들 예~! **우재** 오늘은 어떤 수업인가요? **나눔라디오** 오늘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수업입니다. 바로 라디오 방송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요. **성식**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배우는 입장인데 가르쳐주셔야죠. **나눔라디오** 지구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 젊은이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성장한답니다. 자료를 찾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속에서 스스로 공부합니다. 부족한 부분만 선생님이 가르쳐주시지요. **가람** 그러면 친구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나눔라디오** 그렇지요.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협동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지식을 찾고 나눠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수업주제	스스로 장비사용법 익히기			
준비물	A4용지, 전지, 필기도구(펜, 매직 등), 믹서, 스피커, 마이크, 컴퓨터,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라디오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에 관한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익혀본다. 문화통화 : 지식을 찾는 과정 속에서 협동과 협업의 가치를 나눈다.			
활동내용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1. 장비의 종류와 사용법 익히기 1) 방송에 필요한 기초 장비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자료 조사 2) 조사한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지식으로 정리 2.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1) 서로 정리한 지식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궁금한 내용 질문하기 3. 장비 조작 실습 1)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장비에 적용시켜보기 4. 장비사용 실습해보기 1) 장비별로 사용법 찾아보기 2) 방송을 위해 연결을 시도하고 실제 테스트 방송을 실행 5. 교사의 추가 설명 1) 청소년들의 발표 내용에 보충 설명이나 장비 사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	✳ * ✳ *	40 20 30 10
	오늘의 나눔	6.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서로 조사한 정보에 대한 가치와 전달 방식에 있어서 효율성을 생각해본다.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나눔라디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으로 라디오 방송에 쓰일 장비를 알아보고 장비사용법과 라디오 방송의 기술적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자칫 지루하고 남는 것 없는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주도적 학습형태를 적용하였습니다. 만약 장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과 동료 학습자의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함께 학습해 간다면 수업 진행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업 전 준비사항〉

1. 자료수집 매체 준비

- 1) 인터넷, 관련서적, 전문가, 선생님의 사전 조사 자료 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집 수단을 체크합니다.
- 2) 청소년들에게 찾아야 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소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부터 장비사용법에 관한 것까지 질문의 유형을 나누어 모둠별로 서로 다른 영역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예시) *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 마이크는 어떤 원리로 사람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 오디오 믹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3) 장비 조작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비 준비(마이크, 믹서, 녹음기, 컴퓨터)

❖ 나만의 라디오 방송 만들기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지식은 잘 잊지 않게 됩니다. 사용할 장비에 대한 지식과 장비 사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의도를 잘 설명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크게 마이크와 오디오 믹서, 녹음기, 헤드폰 등이 있습니다. 흔히 해적방송이라 불리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장비에서 몇 가지만 추가한다면 영화 <볼륨을 높여라(Pump Up The volume, 1990)>에서와 같은 마을 방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적제재로 인해 법적으로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공동체라디오가 운영되는 지역이 있으니 향후 공동체라디오 방송과 연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출력 방송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http://www.mediact.org>)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나눔라디오 방송에서는 인터넷라디오 방송을 기준으로 장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 때 음악방송만을 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장비는 마이크와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상과 주변의 일들을 소재로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장비로 녹음기 (mp3 녹음기나 휴대용 MD녹음기)와 오디오 믹서를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디오 믹서의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인터넷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10~30만 원대의 믹서로도 충분하며, 녹음기는 녹음이 가능하고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MP3플레이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방송용 마이크로 3~10만 원대의 저렴한 다이내믹 마이크나 콘덴서 마이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MP3를 활용하여 녹음을 할 경우 녹음 전용 마이크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1. 장비의 종류와 사용법 익히기

- 1) 청소년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일정 시간을 주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합니다.
- 2) 조사한 내용을 토론을 거쳐 정리하게 합니다.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조사한 자료를 복사 후 옮기기만 해서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발표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지식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 1) 토론을 통해 정리된 지식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발표를 준비합니다.
- 2) 발표 형태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보다 전지 등을 활용하여 정리한 지식을 직접 쓰면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자기 지식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모둠별로 발표하게 하고 발표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할 경우 교사가 설명하거나 다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 장비 조작 실습

1) 장비 조작 미션 부여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오디오 믹서와 마이크, 녹음기 등을 결합하고 조작하는 미션을 부여합니다.

미션 예시)

- *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비 세팅의 방법은?
- * 내 친구를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방송한 후 진행자 가 멘트를 하기 위한 장비 세팅 방법은?

2) 장비별로 사용법을 찾아봅니다.

장비 사용법에 대해 선생님은 미리 숙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오 믹서와 녹음기 마이크 등 장비의 연결과 사용법 등을 설명서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자료를 조사하시고 기본적인 세팅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장비 사용 실습

- 1) 방송을 위해 연결을 시도하고 실제 테스트 방송을 실행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둠별로 연결을 해보고 실제 테스트 방송을 진행합니다. 모둠별로 시합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5. 교사의 추가 설명

발표 내용에 대한 보충이나 장비 사용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미리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미션에 대해서 사전 자료조사를 통하여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문화통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찾아낸 지식의 가치와 노력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찾아낸 지식의 가치와 의미, 수업 과정에서 역할과 협동,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찾아낸 지식의 가치와 유용성을 생각해 봅니다.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 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오늘 수업 시간 중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낸 지식 중 유용했던 것이 있다면 거래하도록 합니다. 수업 도중 받았던 도움이나 발생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거래합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 외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나눔통장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나눔통장에 다양한 가치들을 모두 기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가치들이 거래가 되고 의미가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으로 통화의 사용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거래되고 있는 문화통화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화통화는 단순한 상, 벌점이나 쿠폰 대형이 아닙니다.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행동의 유의미성에 대하여 자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활발한 거래를 촉진시키고 통화의 활용방법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한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1월 21일	수업참여 +3솔	40솔	여러 가지 라디오 장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마이크랑 소리의 원리를 알 수 있었다.
	펜을 빌려주어서 다혜에게 -1솔	39솔	
	발표 잘했다고 ○○선생님이 +3솔	42솔	
	○○선생님이 믹서와 마이크를 빌려줘서 -3솔	39솔	
	가림이가 자료 구할 때 도움을 줘서 -1솔	38솔	

* 오늘 수업 시간은 라디오 장비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장비를 빌리기 위해 솔을 지급했네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도 가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펜을 빌리거나 발표를 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칭찬이나 고마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들에서부터 서로에게 가치를 표현한다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 나눔라디오 수업이 진행되는 모람아지트 내에서는 나눔라디오 수업 외 시간으로 나눔통장 거래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시간 후, 수업의 결과에 대해 문화통화인 솔을 나누고,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종례시간에 솔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 2회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모람아지트 명의로 공동통장을 만들어 지각 등 벌금을 모을 용도로 활용하고, 모인 돈은 향후 공동의 목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라디오 이야기

까다롭지만 재미있는 장비 이야기

1. 라디오 방송의 원리

〈방송음향 제작〉



〈음향 송수신〉



[음원]음향신호 → [마이크]전기 신호로 변환 → [오디오믹서]신호 가공처리 → [송신기]전송신호변조 → [송신소]방송 송신 → [스피커]음향신호로 변환

베링거사의
UB1622FX-Pro



2. 믹서(믹싱콘솔)의 역할

믹싱콘솔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개의 마이크나 라인 입력신호를 가공 처리하고 각각의 필요에 대응하여 레코더나 모니터에 출력하는 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 믹서의 기본적인 역할

- ① 복수의 악기나 음원 등 각각의 음량을 조절, 전체의 밸런스를 잡습니다.
- ② 전체의 음량 크기를 조정합니다.
- ③ 음색의 보정으로 이펙터를 사용해 음향효과를 냅니다.
- ④ 모니터 스피커, 헤드폰 등 외부기기에 보내는 신호를 조절합니다.

3. 마이크

마이크로폰(마이크)은 음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변환기기입니다. 첫 녹음 단계에서 결정된 음질은 모든 과정에서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음향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류	지향성	장단점	용도
콘덴서형	무지향성, 단일지향성	잡음이 적고, 출력감도 좋다, 가격이 고가	고정밀 음향, 측정용, 녹음용
다이나믹형	무지향성, 단일지향성	동작이 안정, 야외사용 간편, 가격이 저렴	보컬용

- ① **마이크의 지향성** : 마이크의 방향에 대한 감도를 뜻합니다. 특별한 지향성 없이 주변의 소리를 동시에 감지하는 무지향성, 한 쪽 방향의 소리만을 감지하는 단일지향성, 양쪽 방향의 소리를 감지하는 양지향성, 예리한 단일지향성이지만 원거리의 소리를 잡아내는 초지향성 마이크 등이 있습니다.
- ② **마이크의 사용** : 소리의 크기는 음원과 거리가 멀수록 작아집니다. 마이크는 음원과 지나치게 가까우면 소리가 찌그러지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녹음기의 종류

① DAT 녹음기

DAT 녹음기는 디지털 녹음기로 많이 쓰이는 녹음기입니다. DAT 녹음기의 특징은 아날로그 녹음기와 달리 녹음시 테이프 잡음이 없고 재생시 변화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여러 번 복사해도 열화가 없기때문에 영화나 야의 녹음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② MD 녹음기

MD 녹음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 없이 녹음하는 장비입니다. 이를 테이프리스(tapeless) 녹음기라고 합니다. CD 음질에 근접할 정도로 소리가 좋은데, 최근에 원음 그대로 녹음할 수 있는 MD도 개발되었습니다. 녹음이 편하고 자료의 관리가 쉽습니다.

③ 하드디스크 녹음기

하드디스크 녹음은 소리를 하드디스크에 녹음하고 편집하는 녹음기입니다. 자료의 이동과 재생, 편집이 용이합니다.

④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녹음기로 아날로그 녹음기입니다. 릴 녹음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는 메탈테이프 등이 개발되어 음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콘덴서 마이크

가나믹 마이크

5. 현장 녹음의 기술

- ① 잡음이 없고 명료한 음질로 녹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② 다시 녹음하기는 힘들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③ 헤드폰을 착용하여 소리의 질과 상태를 점검하면서 녹음합니다.
- ④ 녹음 전 반드시 현장을 체크하여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합니다.



네번째 소리시장 준비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아이들** 안녕하세요~! **나눔라디오** 보내준 나눔통장을 보며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지금까지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우재** 해야할 게 많아서 조금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라디오** 고맙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주변 소리를 채집해보는 시간입니다. **성식** 소리를 채집해서 어디에 쓰는데요? **나눔라디오** 소리는 라디오의 중요한 언어입니다. 소리를 잘 듣고 좋은 소리를 잡아내는 능력은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재** 소리를 잘 들으려면 귀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나눔라디오** 여기서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은 소리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의미있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람** 뭔가 알듯 모를 듯해요. **나눔라디오** 말보다는 수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주제

소리시장 준비(소리의 발견과 소리 채집하기)

준비물

녹음기(MP3, MD), 도화지, 필기구, 마이크, 컴퓨터, 나눔통장, 다양한 음원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보이지 않는 주변의 의미 있는 소리를 채집하여 본다.
문화통화 : 보이지 않는 소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거래해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활동내용	수업들어가기	1. 주변의 소리 들어보기 1) 눈을 감거나 가리고 현재 공간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 들어보기 2) 들었던 소리 이야기 해보기 2. 다양한 소리 들어보기 1) 교사가 준비한 다양한 소리 들어보기 2) 들려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 해보기	*	3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3. 소리 채집하기 1) 소리 주제 선정하기 • '나에게 ○○○한 소리' 를 각각 정하고 ○○○에 맞는 소리 나열하기 2) 소리 녹음하기 • 모둠별로 각자가 정한 소리를 실제 혹은 연출하여 녹음하기 3) 소리카드 만들기 • 다음 시간 소리 시장에 사용할 소리카드를 만들기 • 각자 취향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실제 소리를 녹음하기 • 녹음한 소리에 따라 소리카드 만들기 * 녹음 활동은 모둠원에게 도움을 받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100
	오늘의 나눔	4.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이번 수업의 소재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만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반경 1km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엔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는 그 자체로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위한 멋진 소재입니다. 시각적인 것에 익숙한 요즘 시대에 잘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해의 폭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 전 준비사항〉

1. 눈을 가릴 수 있는 안대나 검은 천을 준비합니다.
2. 모동별로 소리 채집을 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준비하고 장비를 체크합니다.
3. 다음 시간에 채집한 소리를 소리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꺼운 도화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실이나 고리로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4. 소리음원(소리 파일)은 자연의 소리, 동물의 소리, 일상의 소리 등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1. 주변의 소리 들어보기

- 1) 너무 환하지 않도록 조명을 조정합니다.
- 2) 안대나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도록 합니다.
- 3) 모두가 바닥에 조용히 앉거나 누우면 교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현재 머무는 공간에서 점차 공간 밖으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 4) 공간 밖에서 현재 머무는 공간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 5) 눈을 뜨고 들었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니다.

2. 다양한 소리 들어보기

교사가 미리 준비해 온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소리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합니다.

〈수업사례〉 공간의 소리 들어보기

교사 :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점점 땅으로 꺼져든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장이 온다면 깨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이 빌딩 안에서 들리는 소리, 빌딩 밖에서 들리는 소리, 길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점점 더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어떤 소리들이 들리나요? 이제는 천천히 다시 범위를 좁혀 보세요. 이제는 내 몸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 장이 움직이는 소리, 피가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교사 : 들렸던 소리들을 이야기해 볼까?

아이들 : 꼬르륵 거리는 소리, 숨소리, 선생님 목소리, 바스락 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똑똑 거리는 소리

교사 : 평상시에 못 들었던 소리가 들린 것이 있어?

다혜 : 바닥에 귀를 대고 있으니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사 : 바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

아이들 : 우는 소리, 대화 나누는 소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문 여는 소리.

교사 : 건물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안 들렸어?

가람 : 우지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사 : 건물 안에서는 보일러 트는 소리, 물이 이동하는 소리 등 건물 자체가 내는 소리가 있지,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들을 때와 바닥에 귀를 대고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어?

우재 :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 소리의 발견과 채집하기

소리를 채집하고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 수업에 들어가 기에 앞서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소리를 듣기 위한 몸의 준비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청 소년들이 쉽게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소리에 집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자 연스럽게 소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3. 소리 채집하기

1) 소리 주제 선정하기

- ① 각자 '나에게 ○○○한 소리'를 정하도록 합니다.
○○○은 기분 좋게 하는, 짜증나는, 행복한 등의 형 용사로 각자가 정하고 싶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을 정했다면 그 주제에 따른 실제 소리가 무엇 인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단, 말을 이용한 소리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주변의 소리로 적도록 합니다.
말도 소리에 포함되지만 말소리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소리를 통한 느낌을 선택하도록 유 도합니다.

2) 소리 녹음하기

- ① 주제에 따라 나열한 소리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직접 녹음하 니다.
- ② 모둠별로 인원을 구성한 후 각 모둠별로 서로 도우며 소리를 녹음하도록 합니다.
- ③ 장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녹음 장비(MP3, MD)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 ④ 녹음 시간은 10~15초 정도로 하며, 앞과 뒤를 각각 무음으로 3초간 정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간을 확보해 두어 편집시 자연스럽게 소리들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3) 소리카드 만들기

다음 시간에 소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소리를 거래하 는 시간이 있는데 소리카드는 이때 이용됩니다. 소리카드는 내 가 녹음한 소리를 "○○○한 ○○소리"식으로 작성합니다.
예) 소름끼치는 칠판 긁는 소리

귀를 세
간지럽게 하는
싸인펜 소리

가슴고트는물소리

군침도는
포도먹는소리

나를 내심장을 두게 하는소리

공주님목소리
(만방님)

조조교언니목소리
넌내야라고말하러
목소리

-사람을사로잡는외노예와내적인보이스톡
술취했을때목소리는더더욱도색시청교애격격아래가

심심할 때
재미 있는
소리

비오는
수돗물소리
소름끼치는
칠판긁는
소리.

불 켜졌다 꺼졌다
하는소리
툇막한소리
(나름명래)
정지판

자 동 차 엔진과
달 리 는 소 리.

* 녹음을 하다보면 녹음 과정에서 다시 소리를 정하 거나 처음 가졌던 주제와 다르게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생각하던 소리와 실제 소리의 차이에서 오는 자 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질 경우 다른 친구들이 기다릴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바꾸지는 않 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오늘은 소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리를 중심으로 거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들어서 기쁘거나 행복했던 소리에 대해, 그 소리를 들려준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통화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수업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채집하기 위해 소리를 제공한 사람들이나 수업 도중 받았던 도움이나 발생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거래합니다.
4. 나를 기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든 소리를 찾아보고 그 소리를 만들어 준 사람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5일	수업참여 +3솔	41솔	여러 가치를 알게 되었다. 녹음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하연이랑 같이 녹음하면서 도움 받아서 -2솔	39솔	
	가람이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 녹음 도와줘서 -2솔	37솔	
	○○샘이 빨리로 물마시는 소리를 내줘서 -2솔	35솔	
	하연이가 도와줬다고 +1솔	36솔	

* 이제 수업시간에 통화를 나누는 일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리에 가치를 부여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에 대한 나눔이니까요. 또한, 소리를 녹음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에 가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소리 이야기

들리지 않는 소리들

반가워.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고장난라디오란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지? 이번 시간에는 소리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잘 들어봐. 신기한 소리 이야기란다. 우리들은 평소에 정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 음악소리, 자동차 소리, 대화하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등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 심지어 잘 때도 옆에서 코고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니 우리의 귀는 정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귀가 아플 정도라니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이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음파의 범위를 가청 범위라고 하지. 사람은 보통 진동수가 16~2만 헤르츠(Hz)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20헤르츠(Hz) 이하의 소리는 초저음파, 2만 헤르츠(Hz) 이상의 소리는 초음파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 영역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어떤 동물은 사람과 다른 가청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내기도 하지. 양서류나 파충류는 저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곤충은 고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초음파를 이용하는 동물은 박쥐, 돌고래, 쥐가 유명하지. 이 동물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초음파로 주고받는데 하네. 그럼 소리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를 펼쳐볼까?

사람들이 처음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할 때였어.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려는데 잘 들리지 않는 잡음 같은 것이 들리더라. 하지만 그 원인을 잡아낼 수가 없었다는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때문이었다는 거야.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 20헤르츠(Hz)미만의 초저음파라서 인간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잖아. 그래서 아직 주파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감지되는 소리가 자전하는 소리였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이지.

다음은 박쥐의 이야기야. 박쥐는 깜깜한 밤중이나 동굴 안에서 활동하면서 먹이를 잡아먹잖아. 18세기에 생물학자 스파라자니는 박쥐를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했어. 박쥐가 어떻게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말이지. 조명이 전혀 없는 방에서 얇은 철사를 연결해놓고 박쥐를 풀어 놓은 거지. 박쥐는 그 어둠 속에서도 유유히 철사를 피해 날면서 멀리 떨어져있던 나방을 정확히 잡아먹었어. 알고 보니까 박쥐는 초음파를 발생해서 되돌아오는 소리로 주변 물체를 인식한다는 거야. 박쥐의 레이더는 무척 예민해서 1cm 앞에 있는 물체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지. 사람들은 이런 박쥐의 능력을 항해하는 어선에 이용하고 있어. 멀리 항해하는 배들이 초음파를 발생해서 레이더를 탐지하는 기능으로 활용하는 거지.

혹시 틴 버즈(TEEN BUZZ) 라고 들어봤어? 어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벨소리를 말하는 거야. 이 벨소리는 십대들의 귀에만 들리고 나이든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특이한 고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사람은 2만 헤르츠(Hz)까지 들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고음은 들을 수가 없거든. 최근엔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이 벨소리를 이용해서 선생님들 몰래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내는데 이용한다고 하더군. 여기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런 게 있어도 수업시간에 딴 짓하는 사람은 없겠지?

어때 소리에 관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여러분에게 신기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 고장난라디오의 노력을 알아주려나 모르겠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 길을 걸으면 다양한 소리가 들리지.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렴. 그럼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물을 마실 때 목에서 나는 소리는? 매미가 실제로 어떻게 울까? 아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바로 실행해볼까?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봐.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어떤 소리가 들리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이번에는 더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볼까? 집 밖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나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물건 옮기는 소리, 더 멀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볼까? 어떻게 들리냐고? 후후 그건 여러분이 관심 가지기 나름이지. 라디오는 소리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훌륭한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난 이만... 다음 시간에 전해 줄 이야기를 생각하러 가봐야겠어. 지지 작...치치...

수업주제

소리시장

준비물

녹음기(MP3, MD), 마이크, 소리카드,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모둠별로 1대), 나눔통장, 스피커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채집한 소리를 활용하여 소리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문화통화 : 채집한 소리를 상품으로 만들고 거래하는 과정을 통하여 무형의 것들도 거래 품목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해 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수업들어가기	1. 녹음한 소리 들어보기 1) 전 시간에 개인별, 모둠별로 녹음한 소리를 들어본다.	*	2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소리를 통한 상황 상상 1) 다양한 발자국 소리 들어보기 2) 소리 듣고 상황 파악해보기	✧	30
	3. 소리 이야기 만들기 1) 모둠별로 채집한 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스토리 작성 • 소리 자원은 전 시간에 녹음한 소리로 구성 2)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소리를 다른 모둠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	✧	70
	4. 소리시장 1) 소리를 거래하는 소리시장 개최 • 다른 사람이 녹음한 소리가 필요한 경우 통화를 지급하고 그 소리를 구입하거나 다른 모둠에게 필요한 소리는 판매	✧	
	5. 소리 이야기 편집하기 1) 교사의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강의 2)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토리 만들기 수집한 소리 자원을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하고 연결하기		
	6. 이야기 감상하기 1) 모둠별로 만든 소리 이야기를 다함께 들어보기		
오늘의 나눔	7.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3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아이
를 안녕하세요! 나눔라디오 어
느새 수업이 절반이나 지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에 채집한 소리를 이야기로 만
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수민 소
리만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
나요? 나눔라디오 당연합니다.
소리는 훌륭한 이야기 꺼리이
죠. 하지만 소리를 이야기로 만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상
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상
상력을 기대하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채집한 소리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만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작품을 라디오 방송에서는 라디오 피쳐(Radio feature)라고 합니다. 라디오 피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피쳐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작정신은 '온갖 소리와 모든 표현 방법을 동원해서 청취자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도록 만드는 것'(라디오 다큐멘터리, 2001년, 김승월)이라고 합니다. 유럽 등지에서는 라디오 피쳐와 다큐멘터리가 구분되며 라디오 피쳐가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소리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혹자는 "TV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만 라디오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든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소리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소리로 이야기 만들기

이번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소리를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정입니다. 앞으로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다 보면 소리만으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주의 깊게 듣다보면 점점 소리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 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주변 소리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질보다 상상력을 얼마나 자극하였는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먼저 많은 소리들을 들어 보고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는 선행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업 들어가기〉

1. 녹음한 소리 들어보기

어떤 소리를 녹음했는지 다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 소리를 통한 상황 상상

1) 소리를 제시하고 어떤 조건에서 나는 소리인지 추측해보게 합니다. 가능하면 한 가지 주제의 소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리를 제시하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수업사례〉 소리를 통한 상황 상상 2

제시된 소리: 처음엔 천천히 걷는다→점점 발걸음이 빨라진다→이제는 뛰다→빠르게 뛰다→뛰다가 갑자기 걸음이 느려진다

교사: 어떤 상황일까요?

수민: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위협을 느낀 여자의 발걸음 소리 같아요.

우재: 물건을 훔친 도둑이 담을 넘어서 도망가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요.

성식: 불량학생에게 쫓기는 학생의 발걸음 소리 같아요.

가람: 수업 시간에 지각한 학생의 발걸음 소리요.

교사: 하나의 소리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발걸음 소리를 통해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사람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단다.

〈수업사례〉 소리를 통한 상황 상상 1

다양한 발자국 소리: 고무신 신고 걷는 소리→ 나무 복도 위를 걷는 소리→ 여성의 발자국 소리→남성의 발자국 소리→ 철판 위를 걷는 소리→ 진흙탕을 걷는 소리→ 눈 위를 걷는 소리→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이 걷는 소리

교사: 같은 소리라도 조금씩 다르게 들릴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수업에 늦은 지민의 소리만 듣고도 문 여는 동작, 주춤거리며 둘러보는 동작,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동작들을 파악할 수 있었지. 라디오는 소리만으로 전달이 되므로 듣는 사람에게 소리만 가지고 상황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 소리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작업 해야함을 명심하지.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3. 소리 이야기 만들기

모둠별로 자신들이 녹음한 소리를 활용해서 소리 이야기를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언어에 의한 묘사나 설명 없이 소리만으로 이어지는 작품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4. 소리시장

1) 모둠별로 이야기를 만들고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싶은 소리를 거래하기 위한 시장을 개최합니다.

2) 소리카드 형태로 상품을 구입하고 문화통화로 값을 지불합니다. 소리 파일은 복사가 가능하므로 여러 번 판매 할 수 있습니다.

5. 소리 이야기 편집하기

1) 편집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사에게 배웁니다.

2) 이야기 구성에 따라 소리를 편집합니다.

시간에 따라 소리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순서에 맞게 자르고 이어줍니다. 만들어진 소리 파일을 mp3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6. 이야기 감상하기

모둠별 작품 줄거리를 설명하고 작품을 감상합니다.



〈수업사례〉 소리 이야기

1모둠 〈교통사고〉

녹음한 소리 : 차 소리, 요구르트 마시는 소리, 비명소리, 화장실 물소리

구입한 소리 : 발걸음 소리

판매한 소리 : 화장실 물소리

이야기 줄거리 : 요구르트를 마시며 걷고 있는데 다 마실 때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요구르트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빨간 불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길을 건넜다. 차 사고가 났다.

2모둠 〈그 남자의 비애〉

녹음한 소리 :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발걸음 소리

구입한 소리 : 없음

판매한 소리 : 발걸음 소리

이야기 줄거리 : 그녀와 만나기 30분 전, 그는 초조하다. 시계는 그런 마음을 알거나 하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킨다. 그녀는 그에게 헤어지자 말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울적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물을 한잔 마신다.

3모둠 〈짜증〉

녹음한 소리 : 칠판 긁는 소리, 손 씻는 소리

구입한 소리 : 화장실 물소리

판매한 소리 : 없음

이야기 줄거리 : 짜증이 나서 칠판을 긁다가 화장실에 손을 씻고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니 시원하더라.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오늘은 소리 이야기를 만들었고 소리시장을 열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의미있는 작품으로 가공되는 과정과 그것에 투입된 정성과 노력, 그리고 이를 거래한 의미에 대해 정리해주세요.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수업 시간 중 거래했던 품목들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4. 소리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은 것들에 대해 가치를 생각해봅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5일	수업참여 +3솔	39솔	편지를 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다. ○○생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소리 판매로 선주에게 +2솔	41솔	
	다혜 언니가 소리 편집하는데 도움 줘서 -1솔	40솔	
	○○○샘이 작업 열심히 했다고 +1솔	41솔	
	○○○샘이 얘기 들어줘서 +1솔	42솔	

* 지민가 거래한 것을 보니 소리를 판매한 것이 보입니다. '소리'를 가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 밖에도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통화의 거래 항목이 점차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도움이나 결과물, 교사와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수업 이후에서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등 정서적 가치에 대한 거래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덧

* 만약 선생님께서 문화통화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계신다면 지금쯤 통화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통화를 모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모으고 쌓아두기 시작하면 문화통화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통화는 모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을 거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라디오 이야기

각양각색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고장난라디오(이하 고장난) : 잘 지냈니? 난 세상에 전할 소식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분에게 전할 좋은 소식을 준비하는 건 잊지 않았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리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도록 하겠어. 아! 그전에 소개할 분이 있어, 이 분은 사운드 편집에 전문가이신 잘서꺼님께서, 잘서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거야. 그쵸, 선생님?

잘서꺼 : 하하 그럼요.

고장난 : 다양한 소리를 너무 잘써어서 편집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먼저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잘서꺼 : 네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아도브 오디오션(Adobe audition)과 사운드 포지(Sound forge), 골드 웨이브(Gold wav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장난 : 아도브 오디오션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잘서꺼 : 네. 아도브 오디오션은 쿨 에디트(Cool Edit)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운드 편집과 믹싱 작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이 프로그램은 멀티채널 믹싱 및

편집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운드는 웨이브 폼에서 편집할 수 있고, 멀티채널에서는 편집된 사운드를 믹싱 및 재생, 편집이 가능하답니다. 때문에 일반인도 사용이 편리하지요, 다양한 사운드 편집 효과도 제공되어서 멋진 사운드로 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 아~ 멀티채널에서 사운드를 편집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사운드 포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차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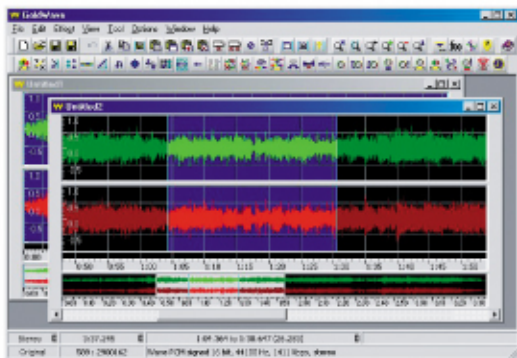
잘서꺼 : 사운드 포지는 강력한 디지털 오디오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능이 뛰어나고 사용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편집 기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TV에서 두 음파를 비교하며 표절시비를 가릴 때 사용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도브 오디오션과 같은 멀티트랙 편집 기

능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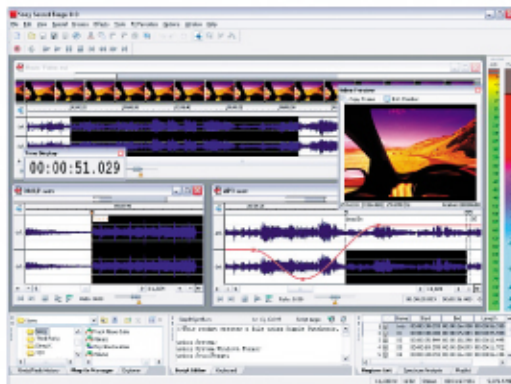
고장난 : 작곡용으로 쓰일 정도면 상당히 정교한 편집 기능을 갖추고 있나보네요. 저도 가끔 음악을 작곡하곤 하는데 그럴 때 쓰면 되겠네요. 호호호.

잘서꺼 : 호호. 이번에는 골드 웨이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웨이브는 사운드를 편집하는 기능 이외에 인터넷 상에서 들리는 음악을 바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골드 웨이브의 기능 중 사람들이 즐겨 쓰는 기능은 음악 파일을 벨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지요.



편집자들은 주로 사운드 포지나 아도브 오디오션을 주로 이용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음악을 녹음해서 편집할 수 있고 벨소리로 만들 수 있는 골드 웨이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리를 녹음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잘서꺼 :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편집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잘 살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멋진 소리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장난 : 네. 잘서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소리 편집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보았어.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소리를 녹음하거나 인터뷰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편집을 잘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오늘 소개한 편집 프로그램과 친해져 보길!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수업주제 사람의 이야기(인터뷰 하기)

준비물 녹음기(MP3, MD), 마이크, A4용지, 필기도구, 빔 프로젝터, 컴퓨터,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인터뷰와 취재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해본다.
문화통화 : 인터뷰를 매개로 주변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통화 활용법을 이해한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수업들어가기	1. 인터뷰와 취재의 이해 1) 인터뷰와 취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설명(PT자료 이용), 취재 기획서 작성과 취재시 행동 요령에 설명 2) 인터뷰로 구성된 프로그램 들어보기	*	3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인터뷰 실습하기 1) 모둠 구성하기 2) 인터뷰 주제를 정하기 • 인터뷰를 위한 상황 설정 3) 인터뷰 계획서 작성하기 • 인터뷰 대상을 모둠별로 선정하기 • 대상에게 알고 싶었던 것이나 묻고 싶었던 것에 대해 질문 리스트를 만들기 4)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며 녹음하기 3. 취재 내용 들어보기 1) 모둠별로 인터뷰 취재한 내용 들어보기 2) 취재하면서 느낀 점을 들어보고 다른 이들의 코멘트 받기 4. 과제 1) 학교나 집 등 교실 밖에서 개인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인터뷰 해오기	+	90
오늘의 나눔	5.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30

활동내용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이
제는 여러분들과의 수업이
기다려 지는군요.

가람 저희들도 재미있어요!

나눔라디오 다행입니다. 이
번 시간에는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우재 오와! 그러면 저희가
기자가 되는 건가요?

나눔라디오 당연하죠. 이
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자나 리포터라고 생각하
고 수업에 임해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 네!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이번 수업은 인터뷰를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주변의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수업에서 만나는 사람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까지 인터뷰 대상을 물색하고 접근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에서는 잘 듣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는 인터뷰 연습을 하고, 과제로 교실 밖에서 인터뷰를 해오게 됩니다. 문화통화는 외부와의 인터뷰를 실행하면서 관계를 촉진하는 매개로 적용해 볼 것입니다.

《수업사례》 인터뷰로 구성된 프로그램 들어보기

MBC 라디오 음향리포트 오늘 <자판기>

교사 : 인터뷰 외에 무슨 소리가 들렸지?

아이들 :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 동전을 넣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요.

교사 : 이 프로그램은 인터뷰와 나레이션으로 구성된 작품이야. 인터뷰는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이 방송의 경우처럼 인터뷰만으로 하나의 방송이 구성될 수 있겠지. 자판기가 있는 장소 소리가 들렸었지?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공간음을 따로 녹음해 두는게 방송하는 데 좋아.

고등학교 학생이 제작한 프로그램 <나이스 데이>

교사 : 앞쪽 인터뷰와 학생이 만든 것의 차이점이 뭐까?

아이들 : 어색해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진행돼요, 질문이 너무 적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짜고 한 것 같아요.

교사 : 앞으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실행했으면 좋겠어.

〈수업 전 준비사항〉

1. 마이크와 녹음기 등 장비를 점검합니다.
2. 인터뷰로 구성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3. 인터뷰를 위한 취재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4. 인터뷰를 위해 제시할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1. 인터뷰와 취재의 이해

1) 인터뷰, 취재에 대한 설명

인터뷰의 정의, 종류, 자세, 방법,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읽을거리를 참고하세요.)

2) 인터뷰로 구성된 프로그램 들어보기

- ① 인터뷰의 특징이 잘 드러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② 딱딱한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보다는 현장 인터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작품을 활용합니다.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인터뷰 실습하기

1) 모듬 구성하기

2) 인터뷰 주제 정하기

상황: 당신들은 나눔라디오 방송국의 신입 직원들입니다. 저는 나눔 방송국의 국장입니다. 국장인 제가 당신에게 지금부터 연말특집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팀별로 프로그램 주제를 제시할테니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십시오. 소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듬별로 <크리스마스의 추억> <크리스마스의 꿀벌건> <크리스마스에 하고 싶은 일>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두 얼굴>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십시오. 잘 만들어진 작품은 연말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할 것이고 보너스가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 인터뷰 대상은 2~3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3) 인터뷰 계획서 작성하기

인터뷰 계획서를 나누어 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4)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며 녹음하기

[인터뷰 계획서]

오늘의 인터뷰 주제	
인터뷰 방법	
인터뷰 대상	
질문	

【수업사례】 인터뷰 계획서 작성하기

오늘의 인터뷰 주제	크리스마스의 두 얼굴
인터뷰 방법	인물 인터뷰
인터뷰 대상	○○○샘, ○○○샘
질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마스의 계획이나 좋은 추억이나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3. 취재 내용 들어보기

취재 내용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 사례]

1 모둠 <크리스마스의 두 얼굴>

: 차분하게 진행했다. 추가 질문이 적절했다. 인터뷰 자세가 좋았다.

2 모둠 <크리스마스의 골불견>

: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단계를 가지도록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따라 두 번째의 방향을 다르게 구성함), 질문자가 질문 유도를 잘했다. 인터뷰 내용에 독특한 것이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등 발전해가는 모습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3 모둠 <크리스마스의 추억>

: 대상에 따라서 인터뷰 내용을 다르게 구성했고, 기본적인 인터뷰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4 모둠 <크리스마스의 ...>

: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했다.(음성변조시킴) 그러나 인터뷰의 기본적인 요소를 모르는 상태여서 녹음이 잘 되지 못 했다.

교사 :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땠어?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계획을 짜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는데 수업시간에 하다 보니 제한된 인원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지. 혹시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대상을 정해서 녹음해 오자.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보면 더 좋겠다.

4. 과제

1) 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

교실 밖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해올 것을 숙제로 냅니다.

2)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에게 답례할 방법을 정합니다. 실생활에서 문화통화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화를 지급하고 그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이번 시간부터는 인터뷰를 통해 외부로 관계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시점입니다. 인터뷰와 문화통화를 병행하여 외부와 관계를 맺도록 해주세요. 혹시 청소년들이 문화통화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모르는 사람보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할 것을 권하고, 문화통화 개념을 모르는 외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문화통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통화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4. 소리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은 내용의 가치를 생각해봅니다.
5. 강의 바깥 인물을 인터뷰 할 때 문화통화 지급 방식,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수업사례〉 외부 사람들과의 거래에 대해서

교사 : 다음 강의까지 교실 밖 인터뷰에서 어떻게 외부인에게 가치를 나눠줄 수 있을까?
 우재 : 모람 아지트에서 만든 솔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지난 번 열린 카페에서 우리가 솔을 쿠폰으로 사용했던 것처럼요.
 교사 : 좋은 의견인걸? 외부에서 도움을 준 사람한테 쿠폰을 나눠주고 열린 카페를 하는 날 수업 마무리 파티와 함께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솔 쿠폰은 어떻게 활용 하는 게 좋을까?
 수민 : 열린 카페에 음식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주 : 하지만 그냥 쿠폰으로 주면 관리를 잘 안하고 버릴 수도 있어
 교사 : 중요한 것은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대가를 지급하는 거야. 이번 인터뷰의 주목적은 외부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솔 쿠폰을 지급해주면 된다. 솔의 의미와 열린 카페가 무엇인지, 솔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외부사람에게 잘 설명해주어야. 솔을 나누는 일은 나눔라디오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려나가기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 인터뷰의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고 그에 맞는 대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러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도 좋겠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 인터뷰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래 목록을 보니 인터뷰를 한 대상에게도 가치를 지급했네요. 작품을 잘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고, 지각을 해서 자신의 미안함을 공동 통장에 기입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5일	수업참여 +3솔	45솔	인터뷰를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녹음할까 고민했는데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생이 녹음기 사용법 알려줘서 -1솔	44솔	
	○○생이 인터뷰에 응해줘서 -2솔	42솔	
	늦게 와서 -1솔	41솔	
	수업 시간에 작품이 좋다고 ○○생이 +2솔	43솔	

〈수업자료〉 인터뷰하는 법

1. 인터뷰

면접, 취재를 인터뷰라 하며, 신문, 잡지, 방송에서 특정의 청취자가 기사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인터뷰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과는 다른 인간미 있는 내용을 기사나 프로그램에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읽기, 말하기, 듣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2. 인터뷰의 종류

- 1) 정보 인터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뷰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 합니다.
- 2) 설명 인터뷰: 어떤 이슈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밝힙니다.
- 3) 감정 인터뷰: 육성중언, 회고담에 해당합니다.
- 4) 인물 인터뷰: 방송의 가치가 있는 인물의 인생담에 해당합니다.
- 5) 가두 인터뷰: 길거리 시민 인터뷰로 연령, 시대, 남녀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3. 인터뷰의 자세

- 1) 취재원으로부터 얻을 것을 확실히 합니다.
- 2) 취재원의 이름과 직위를 파악합니다.
- 3) 사건 개요 및 발생일, 장소 등 기본 사항을 파악합니다.
- 4) 인터뷰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4. 인터뷰 방법

- 1) 청취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며, 자신은 알고 있더라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질문합니다.
- 2) 예, 아니오가 나오게 되는 질문은 지양합니다.
- 3) 광범위한 질문과 너무 협소한 질문은 배제합니다.
- 4)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5. 인터뷰 요령

- 1) 현장 녹음 시, 녹음 확인을 위해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합니다.
- 2) 취재원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 3) 녹음기는 마이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 4) 마이크는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주먹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 5) 질문 외에 다른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 6) 보충질문을 생각합니다.
- 7) 인터뷰 전후 1분 정도 현장의 공간음을 녹음합니다.
- 8) 시간을 조절합니다.
- 9) 적절한 언어 사용을 유도합니다. 외래어, 약어, 비속어 사용을 자제합니다.

* 위의 자료는 미디어연대에서 제작한 공동체 라디오 만들기 워크숍 교재를 참고 하였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1 - 기획과 대본작성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언제나 즐거운 나눔라디오입니다. **아이들**: 안녕하세요! 나눔라디오, **나눔라디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나눔통장을 보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고맙고 흐뭇했습니다. **우재** 에이! 뭘요, 그 정도야 기본이죠. **나눔라디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즐겁게 하리라 예상하며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여러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직접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민** 그럼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나눔라디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수업주제 라디오 프로그램만들기 1 - 기획과 대본 작성하기

준비물 빔 프로젝터, 컴퓨터, A4용지, 필기도구,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본과 큐시트 작성법을 배운다.
문화통화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통화를 모으고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는 가운데 문화통화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활동내용	수업들여가기	1.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1) 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 설명 2) 다른 작품 감상	*	3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기 1) 주제 정하기 •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정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는 이들과 모둠 구성 2) 기획서 작성하기 • 프로그램의 형식과 구성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기획서를 작성 • 작성한 기획서를 피티쇼(PT Show)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전체에게 코멘트를 받고 수정 3. 큐시트와 대본 구성하기 1) 기획서에 따라 큐시트를 제작하고 구성에 필요한 대본 작성 2)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일정 계획을 정하고 역할과 해야 할 일을 정하기	✚	90
	오늘의 나눔	4.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3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이번 시간부터 남은 시간은 청소년들이 모둠별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수업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관심사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의 라디오 방송으로 기획, 제작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고민하는 일은 지루하지만 이후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1

보통 라디오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획-대본, 큐시트작성, 녹음-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과 대본, 큐시트를 작성해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구상부터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전 준비사항>

1.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수업자료를 준비합니다.
2. 큐시트와 대본 양식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예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1.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1) 프로그램 제작하기 이론 설명 (PT자료 이용)

라디오 방송 만들기, 라디오의 특징, 프로그램 종류, 기획에 대한 간단한 강의 (읽을거리를 참조하세요.)

2) 다른 작품 감상

- ① 일반 라디오 프로그램 감상
- ② 청소년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감상
비트박스 강자, 드라마 오브 스킵, 뮤직토크
- ③ 작품들의 장단점과 느낀 점과 함께 제작하고 싶은 방송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2.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기

1) 주제 정하기

2) 기획서 작성하기

- ① 6칸 기획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여섯 요소들을 제작계획서에 풀어 쓰도록 합니다.
- ② 프로그램명은 방송 제목으로 하고 방송시간은 5~10분정도로 제한합니다.
- ③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기획 의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합니다.
- ④ 추정 제작비는 문화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장비의 대여, 인터뷰 사례비 등에 문화통화를 책정하여 예산을 잡아봅니다. 이는 향후 방송국이 시스템화 되어 갈 경우 문화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⑤ 기획서의 완성도에 따라 예산 지급 여부를 확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한 후 예산을 지원합니다.

[제작계획서 양식과 사례]

제작팀	제안일시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제작장소
방송일시	방송형태
기획의도	
방송내용	
추정 제작비	제작스텝
출연자	

덤

- * 청소년들의 작품을 참고할 수 있는 곳
스스로넷(<http://www.ssro.net>)
- * 오디오 드라마 작품을 참고할 수 있는 곳
오디언(<http://www.audien.com>)
- * 기타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

【수업사례】 제작계획서 1

제작팀	영은, 가람, 새결	제안일시	06. 12. 21 (목)
프로그램 명	소리의 강이 흘러간다. "음유하(音流河)"		
방송시간	10분	제작장소	모람아지트
방송일시	06. 12. 30 (토)	방송형태	음악방송
기획의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기억에 남는 음악 선정해보고 지나간 날들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방송내용	2006년 올 한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를 투표하고, 소개, 들어준다. 투표는 수업 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3~4명의 사연을 소개하고, 곡은 3~4곡 정도 들어준다.		
추정 제작비	15솔	연출 : 가람 대본 : 새결 편집 : 영은, 새결	
출연자	DJ 새결	제작스텝	

【수업사례】 제작계획서 2

제작팀	선주, 지성, 고육	제안일시	06. 12. 21 (목)
프로그램 명	애니홀릭(Aniholic)		
방송시간	5분	제작장소	모람아지트
방송일시	06. 12. 30 (토)	방송형태	음악방송
기획의도	일단 우리가 만화를 좋아하니까 펄트리고 싶다는 심정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만화주제곡 중에는 좋은 노래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방송내용	만화 주제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추정 제작비	9솔	연출 : 선주 대본 : 지성 편집 : 고육	
출연자	지성(DJ) 선주(guest)	제작스텝	

3. 큐시트와 대본 구성

라디오 방송에서 큐시트는 약속된 시간계획표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개시에서 종료까지 무엇을 어떤 타이밍에 방송할 것인가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향효과 담당자나 엔지니어에게 구두로 지시할 것을 도표화한 표현수단입니다.

【큐시트 양식】

순서	구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	오프닝	30초	시그널 (10초) 오프닝 멘트 (20초)	
2				
3				
4				
5	클로징	30초	마무리 멘트 (15초) 시그널 (15초)	

【수업사례】 큐시트 1 - 음악방송

순서	구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	오프닝	30초	시그널 (10초) 오프닝 멘트 (20초)	DJ 새결
2	곡 소개	1분	3위 곡 소개 & 음악	DJ 새결
3	곡 소개	1분	2위 곡 소개 & 음악	DJ 새결
4	곡 소개	1분	1위 곡 소개 & 음악	DJ 새결
5	클로징	30초	마무리 멘트 (15초) 시그널 (15초)	DJ 새결

【수업사례】 큐시트 2 - 드라마

순서	구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	오프닝	10초	시그널 (5초) 오프닝 멘트 (5초)	진행 : 수민
2	나레이션	20초	주인공 소개	진행 : 수민
3	드라마	5분 30초	브릿지 다시 날고 싶다 브릿지	
5	마무리 멘트	1분 15초	2부에 대한 소개	
	클로징	10초	마무리 멘트 (5초) 시그널 (5초)	

덤 *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직업체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래의 직업체험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함께 했던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재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연출가적 기질이나 작가적 기질, 혹은 연기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경우 등 청소년들의 재능은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독려해주시고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직업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 방송국 견학이나 관련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1) 대본 작성하기

대본은 라디오의 진행을 위한 대본, 드라마용 대본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 대본에는 멘트나 대사 말고도 효과음이나 브릿지 등도 표기합니다.

《수업사례》 대본작성 1 - 음악방송

(시그널) (오프닝 멘트)

지성 : 안녕하세요, 애니홀릭의 일일 DJ를 맡은 흑제입니다.

(게스트 소개)

지성 :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바로 만화 애호가이신 요롱님이십니다. 오오~(박수)

선주 : 네, 안녕하세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게스트가 되어본 요롱입니다.

지성 : 아~ 저도 처음 DJ가 되었답니다. 후훗

선주 : 오오~ 그럼 우리 동지!

지성 : 아~ 릴렉스 릴렉스~ 네~ 그럼 애니음악 소개를 해주셔야죠?

선주 : 아~ 순간 흥분해서 잊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 소개를 해볼까요?

지성 : 네~

선주 :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애니 음악은 크루노크루세이드라는 만화의 오프닝
인 날개는 프레저라인입니다.

지성 : 아, 저도 그 만화는 압니다. 백작님께서 좋아하신다는... 흐흐

선주 : 음침한 웃음은 그만 두십시오.

지성 : 네, 그러도록 하고, 대략적인 정보를 청취자들에게...

선주 : 네, 제목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프레저라인이구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활발한 편이지요? 그리고 쿠리바야시 미나미미 겐서 부르신 곡입니다.

지성 : 예, 그럼 들어보실까요?

(음악)

지성 : 와~ (박수) 역시 요롱씨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선주 : 예, 그럼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0000입니다.

지성 : 그럼 들어보실까요?

(음악)

지성 : 네 역시 좋은 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주 : 네, 그럼 전 이만... 휘리릭

지성 : 엇! 마법을... 저의 처음 방송 애니홀릭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애니홀릭의 일일 DJ 흑제였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엔딩 시그널)

《수업사례》 대본작성 2 - 라디오 드라마

기획 : 수민, 연출 : 우재, 극본 : 수민과 우재, 효과 : 성식

나오는 사람 :

내(남/16)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본성은
착하지만 세상에 불만이 많은 아이.

엄마(여/40)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
해 노력하시는 인자하지만 엄하신 분

부반장(남/16)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지만 압니다.

수용(남/16) 나의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때 나와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였으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헤어져 못 만나게 됨

기타 : 선생님, 나쁜 친구1, 나쁜친구2, 피씨방 주인아저씨

(타이틀 음악, 주유소 승객사건 주제음악)

(브릿지 음악)

학교에서

(공간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효과음, 문 여는 소리)

선생님: 조용히 해라 조용히! (효과음, 책상을 치는 소리)

우재 : 이 자식은 오늘도 늦는 거냐?

부반장(술머시) 선생님 오다가 우재가 골목에서 달배 피고 있는거 봤는데요.

선생님: (한숨 쉬며) 이 자식이... 알았다. 다들 책 펴

(효과음, 문 여는 소리)

선생님: (버럭) 너 왜 지금 와?

나: (대충 건성으로) 늦잠 잤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화를 내며)너 이 자식 거짓말까지 해? 다 들었어. 나한테 거짓말 할까야?
한참 어린 녀석이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잘한다. (비아냥)아버지 없는
자식인가 티내냐?

나: ...아씨 죄송합니다.

선생님: 혼내놔자 내 입만 아프다. 빨리 들어가서 앉아

(효과음, 수업하는 소리)

나: (독백) 애 정말 학교 다니기 싫다.

(효과음, 쉬는 시간 종소리)

나: (낮은 목소리로) 너 학교 끝나고 나 좀 보자?

부반장: (두려워 하며) 왜 그러는데..?

나: (위협) 잔말 말고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길에서

나: 니가 불었지?

부반장: (불안해하며) 선생님이 물어봐서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나: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

(효과음, 맞는 소리)

-후락-

이번 시간은 청소년들이 만들 라디오 프로그램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획하고 대본을 쓰는 작업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어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독려해주세요. 다시 한 번 강
조하자면, 청소년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재의 일상성과 주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드는 것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만드는 법은 터득할 수 있습니다. 대본 작업을
수업 안에 끝내지 못할 경우, 숙제로 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장비 등을 빌리기 위해 문화통화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통화를 현실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향후 방송국 계획이 있다면 방송장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보다는 문화통화를 지급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라디오 방송국 개국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품앗이의 정신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라디오 방송 기획서의 예산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공정하게 통화를 모아 서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4.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거래 항목을 설정합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12일	수업참여 +3솔	46솔	처음 대본을 만들어봤는데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다. 가람이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줬다. ㅎㅎ
	○○샘이 미션 잘 했다고 +2솔	48솔	
	저녁시간에 설거지를 도와줘서 +1솔	49솔	
	공동통장에 -10솔	39솔	
	대본 작성 잘했다고 ○○○샘이 +1솔	40솔	
	가람이가 멘트 잘 만들었다고 +1솔	41솔	

* 학생들의 거래에서 수업 이외에 다른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도와줘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받았네요. 지민이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교실에 페인트칠을 도와주거나 심부름을 해서 가치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통장에 -10솔 즉, 10솔을 모았다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는 모람아지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후에 라디오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미래의 목적을 위해 공동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덤

* 강의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통화에 대해 다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나눔 통장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된 가치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보고 문화통화의 의미를 정리하고 상기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통화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때쯤 정식으로 문화통화 운영에 대한 규칙과 시스템, 거래품목,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자료〉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하기

1. 라디오의 특징

- 1) 친밀합니다.
- 2) 다른 일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휴대가 간편합니다.
- 4) 청취자의 참여가 쉽습니다.
- 5) 청취자와 진행자간의 소통이 많습니다.

2.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징

- 1) 음악 : 장르별, 세대별
- 2) 뉴스, 토크 : 보도, 시사, 정보, 오락, 대담, 상담
- 3) 매거진 : 한 프로그램에서 잡지처럼 다양한 아이템을 다루는 형식
- 4) 드라마, 콩트
- 5) 녹음구성 : 다큐멘터리, 피쳐
- 6) 공개방송

3. 프로그램 기획하기

- 1) 소재를 설정한다.
소재란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뜻하며,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2) 소재가 되는 것들
사회 현상 전반 : 청소년문제, 사건, 사고, 정신병원, 전쟁, 인종차별...
역사적 사건 : 9·11테러, 2002년 월드컵, 6·25전쟁, 고구려 건국...
일상적 소재 :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인물, 행적 : 문학가, 화가, 음악가, 모델, 가수, 운동선수...
음악적 소재 : 힙합, 재즈, 리듬의 발생, 민요...
철학적 주제 : 윤리, 속도와 공간, 수와 문화...
기타 일상의 이야기들

4.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6칸 기획서

무엇을	왜	어떻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송 형식은? 구체적인 제작 계획 예산은?
누가 (대상, 제작진) 누구를 대상으로 제작진	언제 방송 시기 제작 시기	어디서 제작 장소 방송 장소



여덟번째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2 - 녹음

나눔라디오 벌써 8번째 수업이네요. **가람** 오늘은 어떤 수업인가요? **나눔라디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위해 녹음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장비사용법을 활용함으로 스스로 프로듀서가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네~! **나눔라디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주제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2 - 녹음

준비물 컴퓨터 4대, 오디오 믹서, 마이크, 대본, 스피커, 녹음기,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큐시트와 대본을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을 직접 녹음하는 방법을 배운다.
문화통화 : 공동의 작품을 위하여 문화통화를 모으고 나누는 법을 이해하고 실행해 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활동내용	수업들어가기	1. 대본 점검 및 음원 보완하기 1) 대본을 보완 및 최종 점검 2) 필요한 음원을 녹음하거나 자료 찾기	*	3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하기 1) 녹음 장비 세팅하기 • 모둠별로 녹음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녹음을 실행 2) 녹음 실행하기 • 대본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진행 • 모둠원 외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보충하기 • 녹음 후 확인 작업을 통해 녹음 상태를 확인	+	100
	오늘의 나눔	3.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이제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대본과 큐시트를 바탕으로 녹음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음악 방송일 경우 생방송으로 하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는 녹음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녹음법과 편집법을 익혀두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 전 준비사항>

1. 녹음 장비를 점검합니다.

드라마를 녹음하는 경우 오디오 믹서가 필수적입니다. 출연하는 사람 수에 맞춰 마이크가 여러 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상황에 따라 녹음 매체를 준비합니다.

방송에 따라 컴퓨터가 필요하거나 휴대용 녹음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녹음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1. 대본 점검 및 필요 자료를 체크합니다.

- 1) 대본을 보완하고 최종 점검을 합니다.
- 2) 필요한 음원이나 효과음을 체크합니다.

❖ 녹음하기

이번 시간에는 모둠별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녹음은 소음이 차단된 공간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업 진행>

2.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하기

1) 녹음 장비 세팅하기

모둠별로 계획서에 따라 필요 장비를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합니다.

2) 녹음 실행하기

① 대본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② 연출, 기술, 진행 등으로 역할을 구분합니다.

③ 녹음 프로그램이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을 진행합니다.

④ 모둠원 외 필요한 인원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모둠의 친구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⑤ 녹음 이후 녹음된 결과물의 상태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 다음 시간 준비

편집에 필요한 음원이나 노래 파일을 준비해오도록 합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이번 시간은 녹음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모둠간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통화를 활용한 장비 대여 등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되던 문화통화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문화통화를 어떻게 모으고 나눌지에 대해 모둠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사항〉

1.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의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녹음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장비나 외부인력 총원 등에 지급될 통화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4.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거래 항목을 설정합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덤

* 녹음을 하면서 교실 밖의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19일	수업참여 +3솔	44솔	녹음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제대로 녹음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주에게 녹음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2솔	42솔	
	○○생에게 녹음기와 믹서를 빌리면서 -3솔	39솔	
	녹음방법을 알려줬다고 다혜가 +2솔	41솔	
	○○생이 작업하는데 수고했다고 +1솔	42솔	

*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가치로 표현합니다. 녹음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면서 선생님과 가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찮은 지식(녹음 방법을 친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읽을거리>

광주비엔날레 제3섹터 시민프로그램

"여기는 똥(누면서)두(런거리는)간(이) 라디오"

편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마음 한구석 고이 접었던 말마디를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펼쳐보이세요.

그 마음 마음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날아올라 '똥두간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만큼의 평등과 진정성을 '똥두간 라디오'는 담아내고 싶습니다.

하여, 똥두간 라디오의 작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 똥두간 라디오 포스터 중에서 -

똥두간 프로젝트는 2006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에이스벤추라가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방송멘트를 작성하고 녹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소출력 라디오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작가주의 프로젝트라 명하고 행사장에 놀러온 사람들이 함께 온 사람들이나 그리운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공원 내 작은 공터에 간이 방송국을 정하고 편집실, 녹음실, 방송실을 설치하였지요. 참여자가 편지글 형식으로 멘트를 작성하고 직접 녹음실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된 것은 바로 편집을 통해 생방송으로 올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곳곳에서 똥 누면서 들을 수 있도록 소형 라디오를 설치해놓았지요.



주말에 구경왔던 많은 이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같이 온 연인들이 서로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배 아픈 사연... 엄마가 아들에게, 아이가 부모님께 전하는 그간 못했던 감사함을 전하는 사연... 외로운 솔로가 세상에 고하는 애인 구한다는 자기 홍보 사연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세상에 올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초간단 희귀 라디오 방송 똥두간 라디오는 언제 어디서 다른 참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꼭 방송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손쉽게 가능한 것이 라디오 방송입니다. 인터넷, 소출력 방송, 길거리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라디오 방송을 도전해보세요.

수업주제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3 - 편집
준비물	컴퓨터(가급적 모뎀 수만큼), 스피커, 녹음기, 헤드폰, 나눔통장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녹음된 내용을 편집하는 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문화통화 : 교실 밖의 관계와 소통을 위해 문화통화를 활용하는 법을 찾아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수업들어가기	1.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설명 1) 모뎀별 음원 준비 상태 확인 2)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	*	2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라디오 프로그램 편집하기 1) 편집 장비 세팅과 사용법 숙지 • 편집에 필요한 장비 세팅하기 2) 편집 실행하기 • 전 시간에 녹음한 것과 준비해 온 음원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기 3. 인터넷 라디오 방송 1) 인터넷 라디오 방송 방법에 대한 설명 2) 인터넷 방송 실습 • 제작한 작품을 인터넷으로 방송해보기 4. 공개 방송 준비 1) 장소, 시간, 날짜 정하기 2) 역할 나누기 3) 홍보 대상과 방법	✱	110
오늘의 나눔	5.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나눔라디오 이제 수업이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음된 내용을 다듬고 매만지는 시간입니다. **성식** 조금 아쉬운데요, **나눔라디오** 우리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네~! **나눔라디오** 그럼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아홉번째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3-편집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이번 시간은 녹음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편집해보는 시간입니다. 편집은 녹음된 파일을 가공하고 다듬어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발달해서 예전에는 스튜디오나 방송국에서 가능했던 작업들이 컴퓨터와 편집용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 편집하기

〈수업 전 준비사항〉

1. 가능하면 모뎀별로 한 대씩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준비하고 사운드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습니다.
2. 인터넷 방송법을 사전에 조사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1.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설명

- 1) 모뎀별 음원 준비상태를 확인합니다.
① 방송 형태별로 준비사항을 파악하고 부족한 자료 등이 있으면 보충합니다. (음악파일이나 시그널, 효과음, 공간음, 녹음 및 인터뷰 자료 등)
- ② 편집 프로그램은 5강에서 다루었지만 다시 한 번 기초적인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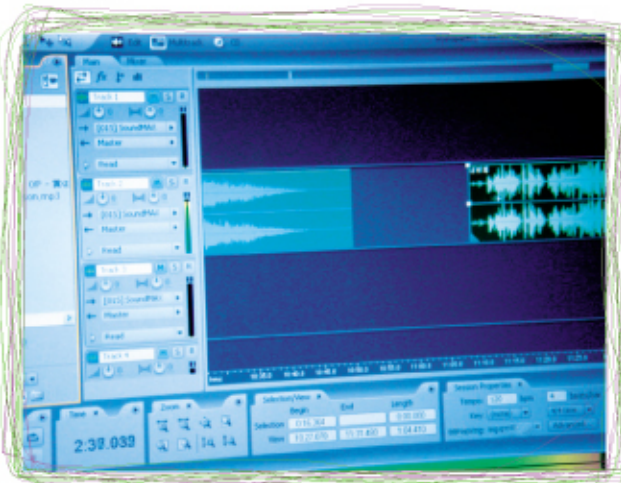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2. 라디오 프로그램 편집하기

- 1) 편집 장비 세팅과 사용법을 숙지하며 편집 작업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 2) 편집 실행하기
① 모뎀별로 녹음파일과 준비된 음원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② 편집은 기본적으로 녹음 파일과 음악, 음향을 배열하고 집음을 없애거나 소리를 조절하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

* 음원은 청소년들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 틈틈이 음원을 확보한다면 편집작업을 할 때, 혹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인터넷 라디오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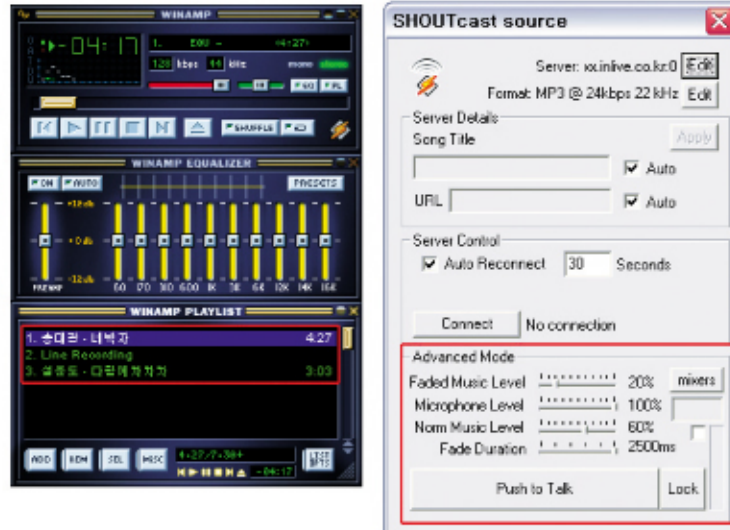
1) 인터넷 라디오 방송 방법에 대한 설명

① 인터넷 방송은 윈앰프(Winamp)나 곰DJ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② 인터넷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이트 : 인라이브 www.inlive.co.kr

2) 인터넷 방송 실습

① 제작한 작품을 인터넷으로 방송합니다.



〈윈앰프와 인터넷 방송을 위한 플러그인 사우트캐스트(SHOUTcast)〉

4. 공개 방송 파티 준비

1) 장소, 시간, 날짜, 준비물을 계획합니다.

2) 전체 진행과 총 연출, 기술 등 필요한 역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수업사례〕 공개 방송 기획서

왜	무엇을	어떻게
나눔라디오의 결과물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눔라디오 개국 축하 공개방송과 파티	전체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드라마와 공트는 중간 중간 소개 하는 방식
어디서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모람아지트 방송국	2006년 12월 31일 오후 3시~5시	누가 - 모람아지트 전체 DJ : 새결, 기술 : 가람 게스트: 지민(공트), 수민(드라마) 음식 준비: 우재 손님 접대 및 쿠폰 관리: 성식 누구를 대상으로-가족, 친구, 선생님 등 초대

수업 둘. 오늘의 나눔

편집이 중심이다 보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개 방송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다함께 논의하고 공개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거래 항목을 설정합니다.
4. 공개 방송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과 예산마련을 위해 필요한 통화를 모아봅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26일	수업참여 +3솔	29솔	편집은 저번에 해본 거라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나도 가르쳐줄 수 있다니 뿌듯했다.
	○○○샘이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2솔	27솔	
	가람이가 편집을 잘 해줘서 -1솔	26솔	
	○○○샘이 음악 자료 구해줘서 -2솔	24솔	

모람아지트의 솔 쿠폰

모람아지트에서 초대 손님을 위해 발행한 솔 쿠폰입니다. 모람아지트는 공개 방송을 위해 공동통장에 문화통화(솔)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선생님께 물품을 구입하고 손님들을 위한 쿠폰을 발행하였습니다.

No. 1318Happy Zone"모람AGIT"



꿈을 펼치는 행복공간

1 솔

* 자료를 구해주거나 교육내용을 알려준 것에 대해 자신한테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가치를 지급합니다. 전 시간 지민의 통장에는 42솔이 있었는데 오늘 거래에서는 잔고에 29솔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수업 시간외에 솔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람 아지트에서 열린 카페를 열었는데 그 곳에서 음료나 과자를 먹기 위해서 그간 모아온 솔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솔은 수업 안에서 가치를 나누는 정도를 넘어 모람아지트의 특별한 행사인 열린 카페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가상이라고 생각했던 문화통화가 실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눔통장 운영에 더욱 신경쓰게 됩니다.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라디오 이야기

공동체라디오 운동

듣자하니 한국에서도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지? 공동체 방송국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을에 방송을 하는 형태라 할 수 있지.

오늘 소개해 줄 이야기는 일본에 있는 독특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야.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라디오'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지. 한국에서는 이제 1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은 현재 160개가 넘는 커뮤니티 라디오가 운영중에 있지. 그 중에서도 독특한 방송국을 소개해주려고 해. 바로 일본의 교토에 있는 방송국인 〈라디오 카페〉야.

카페와 라디오 방송국의 파트너십

특히, 그 설립 자금의 모금 방식에 있어서 이 〈라디오 카페〉의 구조는 독특하다. 라디오 방송국 자체는 비영리조직(NPO)이 소유 운영하는 것이고, 카페 주식회사(corporation)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사이자 광고사로서 기능한다. 양자 간의 계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테면 카페 주식회사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NPO에 일정한 돈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커뮤니티방송을 하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당시 라디오 카페 NPO는 그럴만한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한 방식은 이렇다. 카페 주식회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국에 내는 매달 2십만 엔(약 2백만 원)에 해당하는 방송요금의 5년 어치인 1천 2백만 엔(약 1억 2천만 원)을 미리 지불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라디오 카페 NPO는 허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카페 주식회사는 2003년부터 5년 동안 선불로 낸 방송료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방송국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한, 교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회원들을 조직하여 초기 투자 설립 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기부한 이 회원들은 일정 시간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프로그램 : 구매 참여

〈라디오카페〉는 일종의 회원제를 통해 회원 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구조가 특징적이다. 프로그램 제작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된 교토의 여러 시민들과 각종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와서 정해진 방송 이용요금을 내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금표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분간 1회 이용은 1,500엔(약 1만 5천 원)이다. 물론, 이 돈은 〈라디오 카페〉의 운영비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회원이 돼서 주간, 격주, 월간 등으로 일정 시간을 구매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MD로 가지고 오거나 카페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기도 한다. 방송할 내용을 가지고 오면 자원봉사 스태프가 제작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참여하는 회원 단체는 70여 개에 이른다. 교토의 여러 NPO들이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환경이나 여성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고, 대학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제작 참여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교토후에서도 참여하는데, 방송 내용에 대한 기획서를 보내고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하여 주1회 3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회원 형태로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가 방송국 스태프들이 자체 제작한 것이다. 자원봉사모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카페의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때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아나운서는 자원봉사가 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대학’ 형태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교육과정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일본의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가다〉조동원
미디어 정책연구실장

잘 읽어봤지?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왜 보여줬을까? 앞으로 여러분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겠지. 하지만 나중에 더 발전해서 우리 마을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있다면 어떨까? 교토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통화라는 것이지.

〈라디오 카페〉에서는 회원들에게 실례 돈을 받고 참여하게 했지만 돈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만약에 문화통화를 활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통화를 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통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 문화통화가 아무 곳에서나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문화통화를 활용한다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의 시작! 바로 이 곳 나눔라디오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문화통화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구!!



열번재 라디오 방송국 개국하기-공개방송

나눔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수민 나눔라디오도 잘 있었네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지요? 나눔라디오 예 그렇습니다. 무척 아쉽군요. 여러분들도 아쉽나요? 우재 정말 아쉬워요. 나눔라디오 오늘은 나눔라디오 개국을 위한 공개 방송을 하는 시간인데 준비는 잘 하셨나요? 가람 네! 나눔라디오 저 또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방송 끝나고 뵙도록 하죠. 저도 멀리서나마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주제

라디오 방송국 개국하기 (공개 방송 해보기)

준비물

컴퓨터(가급적 모뎀 수만큼), 스피커, 녹음기, 헤드폰, 오디오 믹서

목표 (활동주제)

나눔라디오 :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하고 라디오를 공개 방송으로 진행해 본다.
문화통화 : 주변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통화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

수업흐름	학습활동	학습 형태	소요 시간
수업들어가기	1. 공개 방송 준비 1) 장비 세팅하기 2) 공개 방송 스튜디오 꾸미기	*	20
나눔라디오 방송만들기	2. 공개 방송 1) 공개 방송 리허설 2) 방송 진행 3. 뒷정리 1) 장비 철수, 스튜디오 정리 2) 평가하기	+	90
활동내용 오늘의 나눔	4. 마무리 시간 1) 내가 주고받은 것 이야기해보기 2) 나눔통장 기입하기	*	20

※ 학습형태 : 전체 활동(*), 개별 활동(+), 조별 활동(△)





수업하나.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수업소개

나눔라디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업 제목은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위한 공개 방송이라 했지만 반드시 방송국 개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 수업이 청소년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만든다는 설정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을 방송국 개국을 위한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10회의 강의만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에 마지막 수업의 정리는 공개 방송의 형태를 빌어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수업의 성과물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청소년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 결과물을 나눈다는 보람과 함께 녹음 방송에서 경험하지 못한 생방송의 긴장감과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인터넷 방송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 방송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결과물들을 공유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부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역의 공동체라디오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므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며 더불어 선생님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 라디오 공개 방송하기

〈수업 전 준비사항〉

1. 공개 방송에 필요한 장비 준비
 - 1) 공개 방송을 위해 오디오 믹서와 마이크, 스피커, 컴퓨터, 헤드폰, 책상 등을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 2) 방송 형태에 따라 FM 송신기(무선카팩)와 소형라디오가 추가적으로 준비되면 좋습니다.
 - 3) 방송을 녹음할 수 있는 준비도 해둡니다.
2. 기타 물품 준비
 - 1) 공개 방송 스튜디오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청소년들과 논의해보고 필요한 물품을 함께 준비합니다.
 - 2) 손님들을 위한 간단한 다과, 프로그램 진행순서나 방송국 홍보 등이 들어간 팸플릿을 준비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1. 공개 방송 준비
 - 1) 장비 세팅하기
 - ①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장비를 세팅하고 방송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② 방송형태는 스피커로 바로 방송하거나 FM송신기를 활용하여 라디오로 직접 청취하도록 합니다.





2) 공개 방송 스튜디오 꾸미기

- ① 공개 방송을 위한 장비를 세팅하고 나면 손님들을 위한 좌석이나 테이블을 세팅합니다.
- ② 다과 등을 준비한 후 이를 위한 메뉴판이나 소개 자료 등을 체크합니다.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

2. 공개 방송

1) 공개 방송 리허설

- ① 리허설은 실제 진행 큐시트에 따라서 손님들이 오기 전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다면 방송시간, 장비상태, 출연 순서 등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체크합니다.
- ③ 프로그램 진행내용과 장비의 조작순서를 맞춰봅니다.
- ④ 필요한 음원(음악파일, CD, 인터뷰 등)을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합니다.
- ⑤ 출연하는 게스트가 있다면 사전에 출연순서와 질문내용을 확인하여 봅니다.
- ⑥ 실제 방송처럼 리허설을 진행해보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수업 둘. 오늘의 나눔

모람아지트에서는 지속적인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였고 청소년들은 문화통화를 모아 장비를 임대하였습니다. 장비는 향후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는 문화통화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른들이 사줄 장비지만 문화통화를 통하는 것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를 대하는 청소년들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방송국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나누려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눔〉

1. 수업을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업 참여 통화를 지급합니다.
2. 지난 시간의 나눔통장 거래 내역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3. 방송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거래 항목을 설정합니다.

〈거래와 통장 기록〉

1. 서로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2. 개인별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3. 문화통화 수업 정리하기

덤

*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공개 방송 형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화통화 수업 또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어떤 거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나누었는지 통장을 보며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향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통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문화통화 수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함께 생각해 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문화통화 수업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Happy Zone 모람아지트 나눔통장 기록 사례〉

날짜	거래내역 (나눔가치)	잔고 (남은가치)	오늘의 나눔느낌
12월 30일	카페 수업참여 +1솔	25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 가운데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맡았다. 많이 떨렸지만 큰 경험을 한 것 같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다음 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솔 쿠폰 교환 -20솔	5솔	
	쿠폰 남은 것 다시 적립 +3솔	8솔	
	우재오빠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2솔	6솔	
	공개 방송 진행자를 맡아서 잘했다고 +5솔	11솔	
	영화 관람 -3솔	8솔	
	열린 카페 도우미 +3솔	11솔	

* 마지막 10장은 수업이 아니라 그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공개 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후원회 어른들도 찾아왔고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민이가 거래한 내역을 보면 '솔 쿠폰'을 볼 수 있습니다. 솔 쿠폰은 문화통화를 외부사람들과 거래할 때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날 열린 카페에 참석한 사람들은 현금을 자신이 정

한 가치에 따라 솔 쿠폰으로 교환을 해서 음식을 구입할 수 있었답니다. 카페에서 얻어진 전체 수익금은 공동통장에 입금됩니다. 일부는 그 날 도우미로 수고한 친구들에게 지급을 하지요. 문화 통화가 점차 외부인들과도 함께 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읽을거리〉 고장난라디오의 라디오 이야기



오늘은 재미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소개해 줄게.

낯설고 먼 미국땅에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래?

'라디오스타'를 꿈꾸는 오산의 이방인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영월의 라디오방송 DJ를 맡게 된 왕년의 가수 왕 최곤은 커피배달 아가씨, 화투치다가 싸움 난 할머니, 짝사랑을 고백 못해 애태우는 꽃집 청년, 가출한 아빠를 찾으며 울먹이는 아이를 방송에 즉석 출연시킨다. 서울의 큰 방송국이었으면 '아찔한 방송사고'가 났을 법한 일이지만 지역민들은 그의 방송에 가슴을 활짝 연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라디오 스타'의 줄거리다.

경기도 오산에도 '라디오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달 19일 첫 정식방송을 목표로 인터넷 라디오방송국 '오산 이주노동자 라디오'를 만든 이주노동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대중매체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로 청취자에게 다가간다는 꿈과 기대로 부풀어 있다. 22일 찾은 오산시 '이주노동자 문화센터' 내 스튜디오는 첫 시험방송을 준비하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스튜디오라고 해봤자 1평이 조금 넘는 공간에 4만원짜리 중고 합판으로 벽을 만들고, 문을 달아 한쪽은 녹음실, 다른 쪽은 기술실로 나뉘었을 뿐이다. 방송시설도 PC 2대와 오디오 믹서 1대가 고작이다. 스피커와 헤드셋, 마이크 등 소품은 인근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 공짜로 얻었으며, PC는 문화센터에서 빌린 것이다. 방송시설은 열악해도 방송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열정만큼은 어느 방송인 못지않았다.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청취자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고된 노동과 차별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주노동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

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될 겁니다."

뉴스와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스리랑카 출신의 다미카 헤랏(27)씨는 오산지역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담은 소식과 음악을 통해 인종과 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지금 인터넷 라디오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꿈도 갖고 있다. 헤랏씨는 첫 시험방송이어서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으나 방송 사인이 들어오자 금세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오산 월드 뉴스입니다"라고 짧게 한국어로 소개한 뒤 직접 스리랑카어로 작성한 뉴스 원고를 읽었다. 이어 스리랑카 노래 4곡도 곁들였다.

다음달 정식 방송 때는 박스 공장에 다니는 아셈 젤란(33)씨가 인도네시아어로, 자원 재생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해 지금은 쉬고 있는 흠 바드라(30)씨가 네덜어로 각각 방송을 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사회가 다양한 국적과 민족으로 이뤄진 만큼 다양한 언어로 방송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들에게 장비 사용법 등을 지도하고 있는 안병천(31) 관악공동체라디오 방송국장은 "아직 방송에 익숙하지 않지만 곧 제작과정 전부를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송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9일 시작되는 정규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오산 이주노동자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owcc.or.kr>)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어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정 같은게 느껴지지 않니? 그들은 외롭고 힘든 타국생활 때문에 더욱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 절실했을 거야. 한국의 방송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직 초보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외로운 타국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희들은 어떠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없니? 멋진 방송국, 많은 청취자들이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는 거지. 그렇게 방송 노하우를 쌓아 가다 보면 어느새 정말 멋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너희들도 라디오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잃지 말라구~!

어필로그 나눔라디오 수업 그 이후

나눔라디오 여러분의 라디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아이들 감사합니다!

수민 정신없이 끝나긴 했지만 방송이 잘된 건 모두 나눔라디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눔라디오 별 말씀을요.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즐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지구별은 참 아름다운 곳일 것 같습니다.

우재 꼭 한번 놀러오세요.

나눔라디오 언젠가 만날 날이 있겠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일을
기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라디오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식 옛날!

나눔라디오 그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이제는 저희가 아닌 여러분들이 지구별에 라디오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퍼트리는 멋진 모험가가
되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민 이제 다시 나눔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나눔라디오 글썄요. 소리는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구별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맡기고 나눔라디오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가람 정말 아쉬워요. 안녕 나눔라디오!

지지...직

고장난라디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이젠 너희들의 몫인 거야!

성식 어라! 고장난라디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고장난라디오 헤~ 오랜만이네! 어때 내가 소개해준 방송이 맘에 들었니?

수민 응! 많은 도움이 되었어. 덕분에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질 것 같아.

고장난라디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성식 오이그! 잘난 척 하기는...

고장난라디오 그럼 나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박사님이 나를 부르시네.

가람 너도 가야되는 거야? 그냥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되니?

고장난라디오 나도 아쉽지만 박사님도 보고 싶고 나의 임무도 있고 해서 돌아가야만 해.

수민 아쉽다. 다신 만날 수 없겠지?

고장난라디오 글썄...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우재 헛! 거짓말. 우연히 왔다면서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운거 아니야?

고장난라디오 정말... 원래 말하면 안 되는데. 살짝만 말해 줄 테니까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

성식 원데?

고장난라디오 약속 지킬거지?

아이들 응!

고장난라디오 실은 난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박사님이 일부러 보내셨어.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100년 후의 지구는 나눔라디오의 행성 Ven의 100년 전처럼 사람들이 나누고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

위기의식을 느낀 박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를 보낸 거지.

우재 우와~!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네?

성식 이걸 믿어야 하는 거야? 무슨 SF영화 스토리 같은데.

고장난라디오 믿든 말든 너희들 자유지만, 어쨌든 난 너희들이 나눔라디오의 가치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그래야 박사님이 날 보낸 의미가 있을 테니까.

가람 그런데 너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고장난라디오 히히! 너희들이 할아버지 됐을 때 내가 태어나거든.

우재 그렇구나!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네.

고장난라디오 옳! 너무 늦었다.

그럼 난 이만 돌아갈게.

모두들 건강하고 60년 후에 보자!

너희들 멋진 나눔 특공대가 되어야한다! 안...너...영

아이들 안녕!

수민 잘 가! 고장난라디오.

성식 뭔가 흘린 것 같기도 하고 속은 것 같기도 하고...

가람 거짓말이면 어때. 어쨌든 고장난라디오를 만나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우재 그건 맞는 것 같아.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성식 그런가?

우재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열심히 나눔라디오 방송을 하면 되는 걸까?

수민 응! 그런 것 같아.

성식 그럼 우리 빨리 라디오 방송국 꾸미러 가자!

아이들 그래!

4부.

아, 아, 아 여기는 나눔라디오입니다



1 함께한 이들 인터뷰

1)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질문1 수업을 하면서 문화통화를 사용해본 소감은 어땠나요?

수민 처음에는 이런 것을 왜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주고받는 것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으로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해서 통화를 모았는데 실제로 활용 할 수 있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 내부 행사에서 간식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무언가 실제로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민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어서 새로웠고 처음엔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먹을 것 등을 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성식 저는 문화통화가 돈 같지 않아서 험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 저도 재미있었지만 실제 돈처럼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교환을 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우재 처음에는 수업을 하면서 문화통화를 쥐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술을 주신다며 일을 시켜 약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술은 상점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질문2 문화통화를 활용한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지민 문화통화를 사용해보고 통장을 정리하니까 수업을 마치면서 다른 친구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았어요.

성식 문화통화를 사용하면서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가는 것 같았어요.

서로 도와주다가 칭찬하는 것에 술을 주면서 신뢰가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성 좋았던 점은 나눔통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서로 무엇을 거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 보니까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문3 술을 사용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변한 것이 있다면?

수민 문화통화를 주고받는 것이 처음 보는 애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눔통장을 하면서 종례시간에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서 같이 할 말도 많아지고 대화를 할 때도 친구들이 나랑 같이 지내는 건 아니지만 같이 통장 쓰고 가치를 나누면서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민 저는 평소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일들도 작은 행동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나의 행동에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성식 문화통화를 거래하면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로를 조금씩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재 마지막 공개 방송이 문화통화로 운영될 때 다른데서 온 친구들이 문화통화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문화통화를 사용하면서 함께 수업을 하니까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4 문화통화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나요?

수민 일반 학교에서도 문화통화를 활용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주 문화통화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져서 문화통화를 모아서 기부를 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식 문화통화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5 앞으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지민 저는 5~10분 정도의 단편 드라마의 형태로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 조작하는 것을 해보고 야나운서도 해보고 싶어요.

수민 보통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생각하면 사연 받고 노래 틀어주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제일 친근감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주 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방송이나 만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질문6 수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수민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지루해 한 것 같습니다.

학교수업 형태보다 놀이처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조금 지루했지만 실습은 재미있었거든요.

성식 쉬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지성 진짜 방송국에서 방송 하는 것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선주 기계 조작하는 것을 더 자세히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방송을 하라고 한다면 아직은 잘 할 자신이 없거든요.

2) 수업 관계자 평가

* 참가자: 해피존 담당선생님, 성남문화재단, 에이스벤추라

에이스벤추라 수업전반에 대한 평가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수업을 지켜보면서는 교육내용이 두 가지가 병행해 들어가면서 끝부분에서는 라디오 방송에 많이 집중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10강 정도를 진행하면서 **지역통화를 전반에 던져줬는데 수업 중간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문화통화를 사용하면서 일상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과 별도로 수업 내에서 중간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거래가 될 수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했을 듯합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거래 가능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언급해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개인 거래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함께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것과 통화 사용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에이스벤추라 아무래도 라디오 수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다 보니 문화통화는 해피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수업과 별도로 문화통화의 진행에 분명한 흐름을 잡고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라디오 방송에 관련된 부분에 비해 문화통화의 코디네이팅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를 교환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줘야 하고 구성원 중에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역통화 자체를 쓰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가치를 찾아내고 교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해피존 라디오 수업 안에서는 무엇을 교환한다는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만약 수업 중간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 청소년에게는 문화통화가 다른 형태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환하는 가치의 코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현장에서 문화통화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디오 수업에서 교환을 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와 함께 이 공간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끼리의 합의 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지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합의 목록이 계속 나왔고, 개인의 가치와 공동의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습니다. **일상생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 과정을 함께하면서 거래되는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이스벤추라 이렇게 외부강사가 결합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수업 내에서 문화통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찾아낸 가치를 교환하는 연습은 당연한 역할이겠으나,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코디네이터가 어디까지 개입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피존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통화가 일상 속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수업내용과 수업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일상 속에서 자리 잡고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보다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담당 선생님들의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피존 수업을 통하여는 문화통화의 개념이 먼저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이해했는데 그럼 문화통화가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문화통화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음을 초기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모르고 덤빈 상태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에이스벤추라에서는 해피존에서 지속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스벤추라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방송국의 운영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과정까지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죠. 전문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반 세팅을 같이 해주시는 담당자가 있으면 이후 자체적 운영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피존 현재 아이들의 라디오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에이스벤추라 지금 단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배운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스스로 라디오 작품을 제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해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피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즉 아이들이 실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FM라디오는 아는데 지역 라디오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그려줘야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식적인 방송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이후 활동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전해 줘야 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에서 보면서 아이들에게 나름의 동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방송국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텐데요?

해피존 아이들에게 동기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로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담당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라서 라디오방송국 운영을 도와줄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아이들의 궁금증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해피존 저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벤추라 이 수업을 구상했을 때는 한 번의 수업보다는 심화 강의까지를 고민했습니다. 심화강의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에 있어서는 에이스벤추라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줄지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함께 고민해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피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아이들의 문화가 건전하게 소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라디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그간 지역통화를 통해서 화폐의 화석화된 가치 교환을 넘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과 지역통화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문화통화교육을 통하여 에이스벤처라는 문화통화가 갖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벤처라는 지난 6년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들을 만나왔고 그러한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통화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통화를 통한 지역문화자원의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화통화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 자원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통화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눔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길러 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학교 안이나 정해진 공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500여개의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지역마다 문화센터나 아트센터 공연장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여타의 시설(지역 방송국, 박물관, 미술관등)을 포함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적 자원은 풍부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는 그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경로를 아는 소수만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의 방중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지역에 문화공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공간을 기획함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청소년들을 문화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공간을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의 향유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문화통화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누며, 화폐를 통한 손쉬운 나눔보다는 땀과 노력을 통한 소중한 나눔의 의미를 지역 속에서 체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통화 회원으로 가입한 문화예술 동호회나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훌륭한 멘토이자 선배로써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통화가 향후 진행될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결합된 문화통화교육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화통화를 통한 지역문화자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에 문화 생산자의 위치를 경험하게 하고 문화통화의 원리를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속에는 문화통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내가 가진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기, 문화통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 이해하기, 문화통화를 실제로 적용하고 운영해 보기 등이 교육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차치 청소년들이 문화통화를 상,벌점이나 포인트 등으로 이해하거나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으로 오해하고 막연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문화통화교육의 적합한 방식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보다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 적절합니다. 경험과 체험 속에서 가치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 지를 직접 경험해야 만이 청소년들도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려 할 것입니다. 나눔 라디오 수업을 통한 통화교육이 아니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통화교육의 결합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눔 라디오 수업을 통해서 정리된 문화통화 수업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통화 수업의 흐름〉

수업과정	수업내용
1. 문화통화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통화에 대해 소개하고 통화의 단위를 정합니다. 나눔통장에 대한 소개와 관리 방식을 알려줍니다.
2. 통장을 활용한 문화통화 체험과 선 경험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런 규칙 없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통하여 일상의 가치를 통장에 기록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3. 거래 기준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된 품목들을 정리해보고 거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경험하게 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통한 거래 기준에 대한 합의이며 규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4. 획득한 기준을 다시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된 거래 기준을 중심으로 거래하도록 합니다. 이후 거래 품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내부에서 사용되던 문화통화를 외부로 확장시켜봅니다.
5.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 후 거래품목의 변화, 발생된 문제점, 보완사항 등을 도출해 봅니다. 문화통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향후 청소년들이 실제로 문화통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내부의 운영 규칙, 거래 가능 품목, 활용방안 등을 함께 설정합니다.

다음은 에이스벤추라가 학교와 학교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축제 만들기 수업에 문화통화의 원리를 적용해 본 문화통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시된 커리큘럼을 참고하시어 꼭 매뉴얼에서 제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건과 상황 그리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통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제 교육을 활용한 문화통화교육안〉

회차	축제 교육	문화 통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소개하기 축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통화에 대한 소개와 단위 정하기 축제를 통한 가치 나눔에 대한 설명 나눔통장에 대한 소개와 관리 방식 알려주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환경분석 축제 아이템 발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이란? 6칸 기획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장을 활용한 문화통화 체험과 선경험 획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서 세부내용 정하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서 프리젠테이션 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통화 거래 기준 합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분담 준비일정 짜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계획-발상 세부 일정 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한 기준을 다시 적용해 보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세부사항 점검 및 실행 축제 시스템 및 당일 시뮬레이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지 만들기 섭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실행을 통한 문화통화 활용 방안 찾기 축제 참여 관객 및 섭외 대상과 문화통화 운영방식 정하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당일 점검 사항 체크 리스트 만들기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실행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및 정리 수업 처음부터 축제 마무리까지 둘러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에서 실행된 거래품목의 변화, 발생된 문제점, 보완점 등을 함께 이야기 해보기 문화통화의 의미 정리

문화통화교육에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에서 문화통화교육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청소년들이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관습에 익숙한 어른들이 문화통화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문화통화를 자신도 모르게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통화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합의와 약속 그리고 관계입니다. 통화가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순간부터 청소년들은 문화통화를 통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른 통제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도 청소년들과 평등한 조건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통화의 진정한 의미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남에서 진행되었던 문화통화교육이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풍부한 사례들이 생산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라(Aceventura)

정의

에이스벤처라 (Ace:최고 + Ventura:모험가)

= 최고의 모험가들, 자칭 '꿈꾸는 모험가들'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라는 긴 말을 앞에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

- 에이스벤처라는 아마추어 정신과 만들어가는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며 이를 중심으로 문화 향유자들의 '창의적' 능동성을 키워주고 주체적인 삶의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합니다.
- 에이스벤처라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교육 내용을 위해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라니, 어떤

- 1) 문화기획교육 학교와 지역에서 축제 만들기, 공간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아마추어 대중문화생산자 되기, 문화예술매개자 교육, 주제가 있는 문화 프로젝트 기획하기, 청소년 동아리 운영하기
- 2) 학교문화예술교육 라디오 방송 만들기, 음악놀이, 생활 속 파티만들기
- 3) 창의력 교육 발상법을 통한 과정중심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기르기, 몸짓 발상, 소리 발상
- 4) 문화 통화교육 일상의 가치발견과 나눔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와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2004년 발간 교재

- 1) 청소년 축제 만들기 핸드북 〈Festival?! 축제?!〉
-부천문화재단, 지역 청소년 축제 기획자들을 위한 핸드북
- 2) 청소년 문화기획 아카데미 문화기획 노트 〈me, myself, mine 2004〉
-기전문화대학, 문화기획아카데미를 위한 워크북

2005년 발간 교재

- 1) 부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교실에 그리는 생활파티〉
-부천문화재단, 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문화기획 교육 지침서
- 2) 문화의 집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놀자, 축제하며 파티하며〉
-기전문화대학, 문화의 집 실무자를 위한 기획교육 지침서
- 3)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축제 〈축제 만들기 하나둘셋 : 청소년문화기획자 되기〉
-경기문화재단, 청소년 리더들의 자치축제 만들기 지침서

2007년 발간 예정 교재

- 1) 학교축제 재미있게 만들기 〈학교, 축제와 접속하다〉 - 부천문화재단, 학교를 위한 축제기획교육 지침서
- 2)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교육 매뉴얼 〈나눔 라디오〉 - 성남문화재단
- 3) 〈청소년 문화기획자를 위한 문화기획 노트(가제)〉
- 4) 문화로 창의력 키우기 〈창의력, 리더십, 자치를 위한 히트, 힛트!(가제)〉

1318 Happy Zone “모람AGIT”

지난 8월 SK와 새)부스리기 사랑나눔회가 함께 1318세대를 위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모델 개발을 위해 구축 지원사업이 공모되었습니다.

성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학교가 1318 Happy Zone 도시형으로 선정되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318 Happy Zone “모람AGIT” 는 “모인 사람들의 공간”이란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만13세~19세 중등과정 학교 밖 청소년(남·여), 중등과정의 모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은 오전 10시~3시까지이며 이후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오후 5시~8시까지 운영합니다.
(급식지원, 교육비 무료)

1. 1318 Happy Zone 설치, 운영 목적

빈곤 소외지역 1318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성을 개발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는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모델을 구축한다.

2. 기본 개념

- 1) 빈곤 위기 청소년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 2) 교육적 기능수행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3) 정서적 지원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4) 문화적 지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1318세대에 대해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
- 5) 지역사회자원 연계 지역사회자원 확보 및 지원,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3. 1318 Happy Zone 기능

- 1) 지역사회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2)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 3)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지원
- 4) 빈곤 위기 가정 청소년에게 가족기능 보완 및 지원
- 5)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
- 6)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제의 사전 예방

4. 모람아지트 프로그램 소개

모람AGIT [동아리(특화)프로그램] 소개

돌봄의 시간, 공존의 공간

청소년의 심과 놀이, 그들만의 호흡으로 만드는 동아리

1) 맘 그림

자유로운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치유의 기회를 갖는 시간

2) 수공예

바느질, 목공, 전기, 도예 등 또 다른 나 만들기

3) 1318인터넷 라디오 방송

소리문화교육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나눔 라디오' 인터넷으로 만나는 1318 소리 공동체

4) 뮤지컬 (춤과 노래)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몸짓으로 즐기는 청소년 문화

모람AGIT [열린 카페]

"나답게, 우리답게 놀고 싶다. 영화관람, 문화놀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카페 열린 공간"

누구나 열린 카페의 주인이고 손님입니다

모람AGIT [문화 통화권]

대한민국 화폐 단위 ⇒ 원

일본 화폐 단위 ⇒ 엔

미국 화폐 단위 ⇒ 달러

1318 우리만의 화폐 단위는 솔 입니다.

단순한 교환가치가 아닌 청소년들의 생활, 문화에 근거한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에 따른 통화를 창조해내고 이를 공동체내의 소통이 되는 문화통화, 지역통화, 나눔통화 입니다.

"생! 차 한잔 드릴까요? (두솔)"

"애들아~ 오늘 너희들 진짜 열공인데? (세솔)"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성남의 미래는 문화입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2004년 12월 22일 출범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세계적인 공연 및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와 미술관, 그리고 25년 넘게 지역 문화예술을 책임져 온 성남시민회관, 그리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와 전국 최초의 책 테마파크 등 생동감 넘치는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며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예술인들이 창조적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창작 사업',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과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환경 개선 사업'과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통화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예술교육 사업'등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예술인들이 함께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는 도시, 문화적 풍요로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과 노력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 문화통화시스템

성남문화통화는

성남문화통화는 돈이 아닌 문화통화라는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지역통화)를 사용하여 시민, 동호회,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성남문화통화시스템은



이 모든 교환에 성남문화통화를 사용하여 성남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사람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 사람, 커뮤니티,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문화를 나눔으로써 문화적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통화란 무엇인가?

‘지역통화운동’은 돈 없이도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자는 움직임

지역통화운동(LETS :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이란 돈 없이도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보자는 움직임입니다. 누구나 다른 이와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소중한 능력, 작은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살려는 노력이 바로 지역통화운동입니다.

지역통화운동은 현재 전 세계 3,000여 곳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좀 더 널리 퍼져 있는 곳은 서양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공동체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지역통화운동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알맞게 다듬은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물물교환, 노동교환, 좋은 만남의 장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 바로 지역통화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실업자들을 지역경제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교육통화로 새로이 자리 잡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작아장터’ 중에서)

문화통화교육매뉴얼은

이번에 제작된 문화통화교육매뉴얼은 성남문화통화의 이해를 돕고 나가 실무자들이 문화통화교육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교육매뉴얼입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문화의 도시, 성남’의 모습을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본 매뉴얼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활발하게 교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